

별을 쏘다 ★

SUNGWOO HITECH MAGAZINE

2017. SPRING vol. 012



따뜻한 봄바람 타고
어린잎이 움을 틔우는 신록의 계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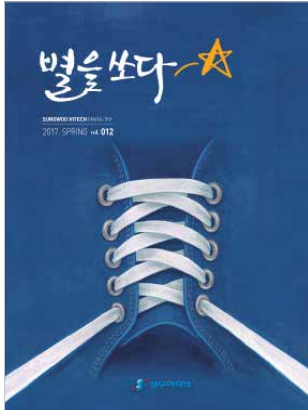
구름과 하늘과 어린 잎사귀가
저마다의 고운 빛으로
눈 안에, 가슴속에, 마음 한구석에
고이고이 들어앉습니다.

색 없이 앙상했던 겨울나무는 어디에
이렇게나 푸른 생명을 품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김없이 싹을 틔우는 나무처럼
생동하는 생의 기운이
대지를 깨우는 계절입니다.



CONTENTS



Cover Story

열정의 끈 단단히 조이고
더 높이 Jump up!

04 Issue&News

08 Happy Together

반가워요,
성우하이텍 어린이집

12 현장 24시

명장의 마음으로 갈고 닦는
명품의 품격

16 Challenge Sungwoo

봄바람 휘날리며 음음~ 달려요

20 Better Tomorrow

'ISO통합경영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첫발

22 Education

더 단단해질 성우의 내일을 준비하며
다시 한 번 Let's go!

26 Special Day

봄맞이 주말농장 나들이
"성우 주말농장에 봄이 왔어요!"

30 Column

변화를 불러오는 힘, 창의적 아이디어

34 Thank you, Sungwoo

1%의 나눔이 만드는 1000%의 행복
'성우공동모금'

36 Interview

클래식 음악과 채식으로 함께하는
건강 콜라보레이션

40 Brain Activity

딱딱하게 굳은 뇌를 말랑말랑하게

42 Going

낭만과 동심이 가득한 동화의 나라~
쁘띠프랑스와 나미나라공화국

48 Car Life

현재 진행형 미래 자동차의 오늘

50 For 40th Anniversary

역사의 역사 속으로

54 Tasty Road

백종원의 <3대천왕>이 인정하는
떡볶이 맛집로드

56 Notice

Brain Activity 정답

57 Event

페이퍼토이로 만드는 슈퍼 히어로



스마트폰으로
성우하이텍 사가(社歌)를 만나보세요.

별을 쏘다 ★

2017 SPRING vol. 012

발행일 | 2017년 4월 28일 (통권 제12호) 발행인 | 이명근

사보기자 | 강승호, 김도형, 김은진, 김태우, 김태훈, 남창식, 문해준, 박노실, 박은혜,

신민환, 안상수, 이성은, 이수승, 이승욱, 정영화, 최성욱, 최수영 (가나다순)

발행처 | 성우하이텍 www.swhitech.com (인사노무팀 Tel. 070-7477-6233)

기획 및 디자인 | 미디어줌 (Tel. 051-623-1906)

(주)성우하이텍 어린이집 개원



3월 2일 서창사업장 인근에 성우하이텍 어린이집을 개원하였다.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회사'라는 경영 이념을 달성하고,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스마트근무의 일환으로 진행된 성우하이텍 어린이집은, 10개월에 걸쳐 사전 수요조사, 부지 매입, 위탁 업체 선정, 건축 및 시공을 완료했다.

대지면적 1,026㎡, 건축면적 655㎡ 규모로 20여억 원을 투자해 지상 2층에 보육실 3개소, 강당, 유희실, 원장실, 상담실, 식당, 놀이터 등이 배치된 성우하이텍 어린이집은 만 1~3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되며, 최고의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녀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 관련 기사: 8P](#)

제15회 성우하이텍배 KNN 환경마라톤대회 개최



3월 19일 해운대 BEXCO에서 제15회 성우하이텍배 KNN 환경마라톤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10km 경쟁부문, 10km 비경쟁부문, 건강달리기 3개 부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수영강변과 광안리 바닷가를 달리며 이른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전 구간이 병목 없는 쾌적한 코스로 설계되어 유모차를 타고 참석한 어린 아이들까지 안전하게 즐길 수 있었다.

성우하이텍, 아산성우하이텍 가족 천여 명도 이번 대회에 참석하여 겨우내 움크렸던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 넣었으며, 가족·친지·동료들과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특별한 추억을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관련 기사: 16P](#)

지사공장, 2016년 GM 주관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우수사업장 선정



3월 15일 한국GM 창원공장 연수관에서 '2016년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우수사업장'(이하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주)성우하이텍 지사공장이 상패를 수상하였다.

이번 우수사업장 선정은 한국GM(주) 창원공장 과 협력업체가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의 공동 수립/시행/개선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성우하이텍 지사 공장은 26개 사내의 협력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성우하이텍 지사공장은 2012년부터 GM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며, 이번 우수사업장 최초 수상을 계기로 산업재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2017년 노사화합워크숍 개최



2월 20일 부산은행 연수원에서 노사문화 일체감 조성을 위한 2017년 노사화합워크숍 1차수가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총 10차례에 걸쳐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3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앞둔 시대 자동차산업의 미래>, <위기 극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 <우리 회사 CF 만들기> 등으로 강의가 짜여 있어서 지식/정보 공유와 능동적 참여가 어우러진 구성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처음으로 시도한 스톱모션 CF(Stop-motion CF) 제작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의 향연으로 참가자 전원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 [관련 기사: 22P](#)

제3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3월 29일 서창공장 대강당에서 제36기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보수 한도 승인의 건,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 승인의 건을 승인하였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경기 침체,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인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대외경기의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나, 지난해부터 독일, 멕시코, 중국 창주 생산 공장에서 성공적으로 제품을 양산하기 시작한 만큼, 획기적인 기술 개발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주주 총회를 마무리하였다.

ISO 통합경영시스템 KICK OFF



3월 10일 서창공장 대강당에서 ISO통합경영시스템 KICK OFF 행사를 가졌다. 이번 ISO통합경영시스템은 신규 인증을 추진하는 ISO22301(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과 기존 운영 중인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 45001(안전경영시스템)의 안정적인 통합운영과 2020년까지 국내외 전 사업장 통합 구축을 목표로 한다.

신규 인증을 추진하는 ISO22301은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막고 생산시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여 납품 지연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주요 생산시설 및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관련 기사 20p](#)

통합의학전문의 김창석 교수의 암 예방 강좌 개최



1월 19일 서창공장 대강당에서 통합의학전문의 김창석 교수를 초빙하여 암 예방 건강강좌를 개최하였다. <MBN 천기누설>에도 출연한 바 있는 김창석 교수는 수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다양한 생활 수칙과 효과적인 식이요법(올금, 폴리페놀, 각종 미네랄 등)이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임직원들에게 설명하여 주었다.

백승렬 박사, 4차 산업혁명과 자동차 산업의 미래 특별 강연



3월 27일 서창공장 대강당에서 “4차 산업혁명과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한 백승렬 공학박사의 특별 강연이 진행되었다. 이번 강연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자동차의 친환경화, 인공지능화, 자율주행화로의 변화를 체감하고, 격변하는 미래 속에서 성우하이텍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었다.

... [관련 기사: 48P](#)

아산성우하이텍, 아산시 족구협회장기 대회 우승



3월 19일 둔포면 테크노밸리 내 중앙공원에서 열린 '제5회 아산시 족구협회장기 대회'에서 아산성우하이텍 족구팀이 당당히 우승하였다. 아산시체육회와 아산시족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대회에서 아산성우 족구팀은 처녀 출전에 첫 우승이라는 영광을 차지하며 아산 성우의 기개를 만방에 떨치고 돌아왔다.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부산지회에 성금 기탁



1월 24일 서창공장 홍보실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금연운동에 참여한 직원 17명의 정성이 담긴 성금 510만 원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부산지회에 기탁하는 행사가 열렸다.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부산지회는 금연운동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감사장과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였으며, 이날 전달한 성금은 부산경남 백혈병소아암 아이들의 치료비와 수술비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Happy Together

성우가족의 꿈이 자라납니다!

반가워요, 성우하이텍 어린이집

서창사업장 인근 주진동 웅상출장소 옆에 색색의 예쁜 건물이 들어섰다. 스마트근무의 일환으로 마련된 성우하이텍 어린이집은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한 시설이다. 지난 2월 25일, 사내 공모를 통해 입소가 결정된 성우 가족들이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어린이집을 찾았다.

시설	지상 2층 보육실 3개소, 강당, 유희실, 원장실, 상담실, 조리실, 놀이터
보육 대상	만1~3세의 영유아
정원	48명
보육시간	오전 7시~오후 7시
교직원	원장, 교사 4, 조리원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

하얀색 펜스를 지나 앞마당에 들어서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고무칩으로 안전처리를 한 바닥과 아기자기한 미끄럼틀이 아이들을 맞는다. 지상 2층 규모의 어린이집은 너른 실내 공간과 안전한 시설을 자랑한다. 1층에는 연령별 발달과정에 따라 마련된 보육실과 원장실, 상담실, 조리실과 함께 학부모 대기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아담하게 꾸며진 화장실, 세면대 등이 웃음을 자아낸다. 2층의 넓은 강당에는 아이들이 실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시설과 안전을 위한 매트를 설치했다. 어린이집의 모든 공간에는 공기청정기와 가습기를 설치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한 환경을 갖추었다. 또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모든 공간과 기구, 식기 등을 '안전위생점검표'에 따라 매일 점검하고 관리한다. 아이가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제2의 생활공간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에 마음이 놓인다.





02



03



04



바른 먹거리로 만든 균형 잡힌 식단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바로 아이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먹거리이다.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재료를 쓰는지, 화학조미료는 들어가지 않는지, 영양소가 고루 분배된 균형 잡힌 식단인지... 신경 쓸 부분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닐 터. 뉴스에서 가끔 접하는 부실한 식단을 떠올리면 걱정은 더해진다. 하지만 성우하이텍 어린이집이라면 그런 걱정은 내려놓아도 좋다. 성우하이텍 어린이집은 푸르니보육지원재단의 전문 영양사가 식단표를 작성하며, 유기농 친환경 식자재료 인공조미료 없이 직접 조리한다. 오전 간식, 점심 식사, 오후 간식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저녁 식사는 신청하면 제공된다. 일주일치의 식단을 홈페이지와 게시판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질환 및 알레르기 등 특이사항에 따라 식단 조정도 가능하다.

01 환하고 밝은 입구 02 어린이집 전경
03 안전 매트가 설치된 2층 강당 04 점심 식사와 간식



05



06

05 1층 놀이시설 06 1층 놀이시설 안쪽 책장 07 (뒷줄) 왼쪽부터 김지은, 배혜진, 고은미 선생님, (앞줄) 이미선 원장선생님, 김은정 선생님 08 보육실 전경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실력 있는 교사

안전한 공간, 건강한 먹거리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교육프로그램이다.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 전문업체인 푸르니보육지원재단이 성우하이텍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푸르니보육지원재단은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특징과 경험, 발달과업을 중심으로 '푸르니 보육프로그램'이라는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을 토대로 한 '푸르니 보육프로그램'은 영유아의 자율적인 선택과 주도적 활동을 통해 내적 동기화를 일으키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령, 만 1세에는 자발적 탐색을 위한 오감각 체험을 강조하며, 만 2세에는 자율성 증진을 위한 주도적 놀이, 만 3세에는 사고력 증진을 위한 통합적 활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이 구성된다. 푸르니보육지원재단의 까다로운 채용 절차를 거친 높은 교육 수준의 교사들이 연령별 교육프로그램을 훌륭히 소화한다. 성우하이텍에서는 어린이집 근처에 출퇴근이 어려운 교사들을 위한 기숙사를 건축하여, 교사들의 행복이 직원 자녀들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배려했다.

스마트폰 앱 이용, 부모와 소통하는 어린이집

아이가 어린이집 생활은 잘 하는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지 등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부모라면 궁금한 점이 넘치게 마련이다. 성우하이텍 어린이집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

각종 어린이집 행사를 알리는 '어린이집 소식', 한 주간 아이들의 놀이 활동 프로그램을 담은 '보육계획안', 교실에서 실시된 교육활동과 놀이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아뜰리에', 선생님과 상담을 위한 게시판인 '소곤소곤' 등이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된다. 스마트폰 앱으로는 어린이집 소식을 확인하고, 선생님과 상담도 할 수 있다. 안전한 시설과 전문적 교육프로그램은 물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학부모 연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성우하이텍 어린이집. 보육 걱정을 덜어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해줄 성우하이텍 어린이집 개원이 반갑다.





07

08



성우하이텍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부모님들께

“아이는 하나의 인격체,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예전 경험에 의하면, 직장보육시설은 일찍 오고 늦게 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낼 텐데, 심리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선행기술팀 조국래 책임연구원 가족

회사에서 푸르니보육지원재단을 통해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전문 보육재단이 위탁 운영한다고 하니 믿음이 갑니다. 유연근무제 덕분에 출근을 민호와 함께하게 됐는데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큼니다.

생산기술1팀 정용석 과장 가족

걸어서 등·하원할 수 있는 곳에 우리 회사 어린이집이 생긴다는 얘기에 얼른 신청했습니다. 시설도 훌륭하고 소윤이도 좋아해서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형설계팀 오태경 과장 가족

시설이 좋고 선생님들도 친절해 보이셔서 기대가 됩니다. 다은이가 잘 적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집에서도 돕겠습니다.🌈

명장의 마음으로 같고 닮는 명품의 품격

금형공장 사상반

명장은 칼 한 자루를 완성하기 위해 천 번의 담금질을 거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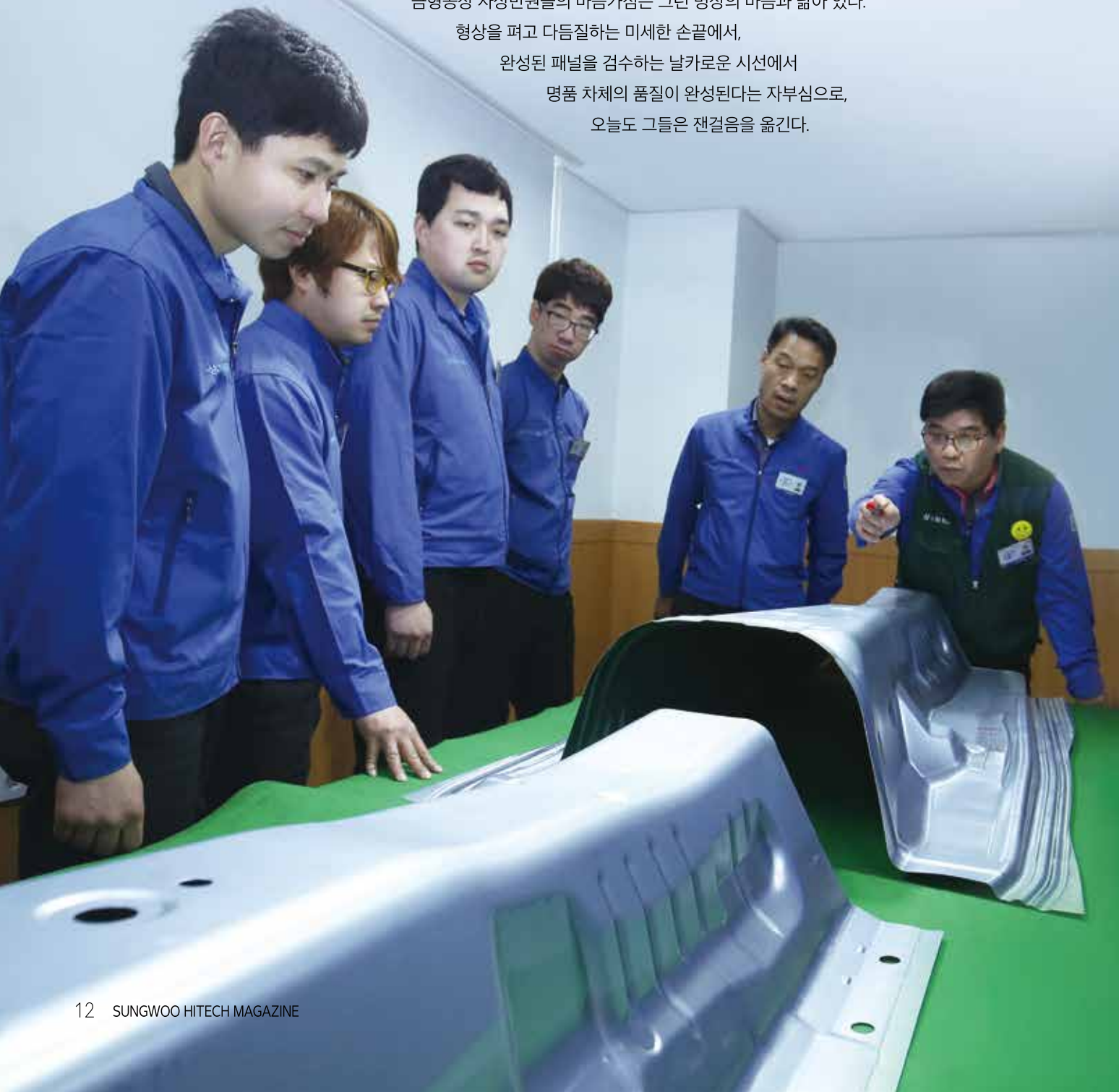
금형공장 사상반원들의 마음가짐은 그런 명장의 마음과 닮아 있다.

형상을 펴고 다듬질하는 미세한 손끝에서,

완성된 패넬을 검수하는 날카로운 시선에서

명품 차체의 품질이 완성된다는 자부심으로,

오늘도 그들은 땀결음을 흘린다.



사상반에서는 금형의 형상을 주름 없이 균일하게 펴주어 상하형의 합을 맞추고
형상 부분에 광택을 내어 품질을 향상한다. 금형의 최종 단계에서 찍는 화룡점정이다.



**금형 품질
향상의
화룡점정**

겨울 작업복을 벗고 가벼운 춘추복으로
갈아입을 만큼 따뜻해진 3월.

취재를 위해 모인 사상반원들로 현
장은 금세 북적북적해진다. 앞뒤로
무려 4개 줄을 채울 만큼 많은 인원
이다. 사상반은 성우하이텍에서도 인

원이 많은 반으로 꼽힌다. 조영식 반장의

진두지휘 아래 4개 조에 50여 명이 편성되어 있다.

인원이 많은 데는 이유가 있다. 사상은 금형의 마무리 단계로, 업
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금형 가공 결과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
하기 때문이다. 금형은 공법/설계, 성형, 가공, 부품 조립의 과정
을 거쳐 사상에 이른다. 사상반에서는 금형의 형상을 주름 없이
균일하게 펴주어 상하형의 합을 맞추고 형상 부분에 광택을 내
어 품질을 향상한다. 금형의 최종 단계에서 찍는 화룡점정이다.
금형을 성형하는 드로우(Draw) 공정,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
어 제품 틀을 만드는 트림(Trim) 공정, 드로우 공정에서 할 수 없
는 성형을 다시 만드는 리스트라이크(Re-strike) 공정, 기능 홀을
만드는 피어스(Pierce) 공정 하나하나에 사상반의 손길이 닿는다.
사상반 반원들이 설계, 기계, 가공 등 금형 공정의 전반에 걸쳐 지
식을 쌓고 다른 공정과 소통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사상반의 손을 떠난 금형은 곧바로 고객에게 납품되어 제품 생산
에 들어간다. 현지의 생산 설비에 맞추어 트라이 아웃(Try-out)
과정까지 책임지다 보니 체크, 독일, 중국 등지로 해외 파견이 잦
다. 이처럼 사상반원들은 단순히 금형을 다듬질하는 것이 아니라
금형 품질 향상의 최전선에 서 있다.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어느 한 단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고민해야죠. 품질 좋은 금형이 성우의
얼굴이라는 생각으로 늘 작업에 임합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즉각적인 기술교육과
노하우 전수는
반원들의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한 발 빠른
대응으로 미래를
대비한다**

모든 프로젝트에는 정해진 마감일이 있다. 사상반은 마감일을 맞춘다기보다 앞당긴다는 생각으로 작업에 임한다. 생산 과정에 생길 수 있는 예상 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지키는 철칙이 있다. 각 공정을 진행하는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해결책을 찾고 보완하는 것이다. 이럴 때 조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조장들은 문제 상

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반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기술 교육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준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즉각적인 기술교육과 노하우 전수는 반원들의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조영식 반장은 열흘에 한 번 정도 30분에서 1시간가량 전체 교육을 진행한다. 이때 엔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주제로 올려 문제 상황을 되돌아본다. 패널이 완성되면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과 잘 되었던 부분을 이야기하는 품평회도 갖는다. 이 자리에도 역시 프로젝트를 맡았던 반원 모두가 참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눈다. 현장 교육의 결과는 금형 재질과 프레스의 텐션을 감안한 데이터로 정리되어 반원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 품질 좋은 제품을 빠르게 생산하기 위한 이 같은 노력들이 곧 사상반의 경쟁력이다.





명품 차체 생산자로서의 자부심

안전보장과 연비향상은 자동차산업의 영원한 과제이다. '묵직해야 안전하다'는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깨뜨려야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단단하지만 가벼운 소재가 그 답이다. 하지만 신소재는 발견/제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루기도 만만치 않다.

사상반에서 최근 진행했던 H(제네시스) 프로젝트도 그런 예 중 하나였다. 명품차를 표방하여 출시한 모델답게 차체에는 고장력 강판이 적용됐다. 소재의 특징에 따라 프레스로 가해지는 압력이 달라지니 사상이 필요한 형상에도 변화가 생긴다. 성형도 잘 되고 뒤틀림도 적었던 무른 재질의 소재와 달리 공정 하나하나가 까다로운 소재였다. 잘 씻기지 않았고, 요철도 많았다. 낯선 소재를 다루려니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절로 등줄기에 땀이 맺혔다. 하지만 높고 험준한 산을 상대할수록 정상에 올랐을 때 보람이 크지 않던가. 마침내 제품을 납품하고 품질을 인정받았을 때의 희열이란!

"명품차의 일부분을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큼니다. 그런 자부심이 오늘보다 내일 더 발전하는 사상반을 만드는 밑거름이지요."

최근 성우하이텍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인 BMW 본사에 차체 부품을 납품하게 되면서 사상반은 또 다른 도전의 출발선에 섰다. 품질을 인정받으며 명품 업체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성우하이텍의 금형. 사상반이 그리는 마지막 방점은 금형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며 성우하이텍을 더 큰 세계무대로 이끌 것이다. 🌈

막내부터 베테랑까지 한마음이 되어

사상반에는 25년 이상 경력을 쌓은 베테랑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모두 금형 공장의 성장 과정을 지켜봐온 산증인들이다. 그 사이 현장 직원들에게도 직책이 생겼고, 사상반원 수가 설립 당시 금형공장 전체의 인원을 웃돌 만큼 성장했다.

반원 수가 많고 베테랑과 젊은 반원 간 나이 차이도 나는 만큼 다양한 스킨십 활동을 통해 반원 간 화합을 도모한다. 주말이면 반원들이 모여 산을 오르고 반 내에 탁구 동호회와 축구 동호회도 운영하고 있다. 회식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반원들의 개인적인 고민까지 들어주는 것도 선배들의 몫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레 형성된 가족 같은 분위기 덕분에 사상반원들 간에는 진한 동료애가 흐른다.

사상반원이라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의 안전을 점검해준다. 작업자 스스로 3정 5를 철저히 지키는 것에 더해 혹시 모를 동료의 안전까지 챙겨주는 것이다. 안전에 관한 한 관리감독자가 따로 없어야 한다는 것이 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가족 같은 분위기와 진한 동료애는 자연스럽게 생산력 향상으로 이어진다. "차체의 요소요소를 잘 조립해야 완성품이 잘 만들어지지요. 그처럼 전체 반이 한마음이 되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때 좋은 제품이 나옵니다."



봄바람 휘날리며 음음~ 달려요 ♪♪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UhUh) 둘이 걸어요.”

봄이면 거리를 수놓는 익숙한 멜로디처럼, 봄의 시작을 알리는 성우하이텍배 KNN 환경마라톤 대회가 올해도 성황리에 치러졌다. 살랑거리는 봄바람은 온기를 한껏 머금었고, 등허리를 비추는 별은 한층 따스해졌다. 가족, 연인, 친구, 동료... 소중한 이들과 함께 달리다 보면 어느새 봄기운에 흠뻑 취한다.





도심에서 즐기는 건강 마라톤

춘분을 하루 앞둔 지난 3월 19일, 이른 새벽부터 해운대 벅스코 광장으로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아빠 손을 잡은 어린 아이부터 단체복을 맞춰 입은 동호인, 백발에 건각을 자랑하는 어르신들, 그리고 반가운 얼굴의 성우인들까지. 모두 올해로 15회 째를 맞은 ‘성우하이텍배 KNN 환경마라톤’ 참가자들이다.

벅스코를 출발하여 수영강변, 광안리 해변을 돌아오는 10km(경쟁/비경쟁), 5km(건강 달리기) 코스에 개인, 가족, 단체, 동호인 등 모두 만여 명이 참가하여 저마다 추억을 쌓았다. 까르륵 하는 웃음소리가 그칠 줄 몰랐던 초등학생들, 파이팅 넘치는 성우인들, 아이와 함께하는 부모들, 경쟁부문에 참가한 아마추어선수들까지 날씨만큼이나 밝은 표정으로 대회를 즐긴다. 땀에 흠뻑 젖어 결승선을 통과하는 참가자들의 얼굴엔 하나같이 뿌듯한 성취감이 흐른다.

도심의 친수공간을 달리며 성큼 다가온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대표 마라톤. 내년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저마다의 도전을 이어갈지 벌써부터 기대가 크다.

MINI INTERVIEW

첫 참가에 개인 기록 경신까지 ‘재경팀 김병인 사원’

가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합니다. 주로 10km를 뛰는데, 오늘 처음으로 1시간 안에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서 너무 뿌듯합니다. 회사에서 후원하는 마라톤 대회에 처음 참가하여 개인기록까지 깬으니, 두근두근 기억에 남을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마라톤 도전, A부터 Z까지

시작하기 전에



성우하이텍이 공식 후원하는 마라톤 대회만 해도 1년에 두 번.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고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지만, 가끔은 경쟁 부문에 도전하여 기록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그런 성우인이라면 여기를 주목할 것!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마라톤 공략 팁을 소개한다.

01

풀코스도 한 걸음부터



마라톤은 무엇보다 자신의 운동능력에 맞추어 거리와 속도를 조절해야 부상 없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다. 자신

의 능력에 맞는 거리를 여러 차례 도전한 후 자신감이 생겼을 때 한 단계씩 거리를 늘려 가는 것이 운동 효과를 높이고 부상 예방에도 좋다.

02

기본 중의 기본, 기초 체력



무턱대고 달리기만 하면 되느냐고? 쉽게 생각하고 덤벼타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마라톤 도전을 위해서는 근

력운동/유산소운동을 병행하며 기초 체력을 탄탄히 다져야 한다. 기초 체력 훈련은 코스별 도전에 앞서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훈련이다.

03

내게 맞는 러닝화 마련



마라톤은 특히 하체에 무리가 많이 가는 스포츠다. 때문에 발과 무릎관절 보호를 위해 반드시 마라톤화를 착용

해야 한다. 발바닥(오목/평발/보통) 특징, 발 폭(일반/협소/넓음)에 따라 전문점에서 추천받아야 한다. 자신의 발 치수보다 10~15mm 큰 치수를 구입하는 게 좋다.

04

마라톤 성패의 핵심, 페이스 조절



마라톤 도전의 성패는 일정 속도를 유지하며 완주를 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페이스 조절 없이 처음부터 무

리해서 달리다가는 금세 지치고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 보통 1km당 8분 정도로 달릴 수 있도록 훈련할 것. 마라톤 훈련을 위한 어플을 이용하여 체력에 맞게 단계적으로 속도를 높여간다.

5km

초보자가 도전할 수 있는 기본 코스. 건강 달리기 코스로도 각광받고 있으며, 1~2개월에 한 번 정도 도전하면서 체력을 늘린다. 이렇게 약 1년 정도 5km를 훈련하고 다음 단계에 도전한다.

10km

5km코스에 익숙해진 초보자라면 도전해볼 만한 코스. 의욕만 앞서서는 무릎과 발목 관절, 심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으니, 반드시 기초 체력을 탄탄히 다진 후 도전한다. 10km 코스 도전을 위해 훈련할 때는 매번 약 30~40분 정도 쉬지 않고 달리는 연습을 병행한다.

하프코스 (21.0975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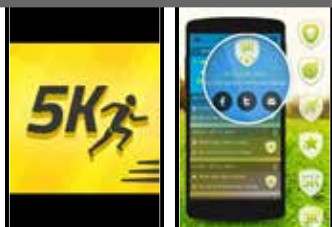
5km코스와 10km코스 경험을 충분히 쌓은 후 도전할 만한 코스. 마라톤 중급자의 경우 주 3~4회 훈련하며 지구력과 스피드 향상에 주력한다. 마라톤 출전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2~3개월에 한 번 간격으로 도전한다.

풀코스 (42.195km)

에너지 소모가 가장 큰 코스. 체력을 다 소진하고도 8km가량은 더 달려야 해서 체력 안배 및 장거리 감각을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하프 코스를 15회 이상 완주하여 장거리 감각을 충분히 익힌 후 도전하기를 추천한다. 풀코스 완주 후에는 한 달 정도 회복 훈련이 필요하다.

스마트하게 달리자~ 똑똑한 '러닝앱'으로 마라톤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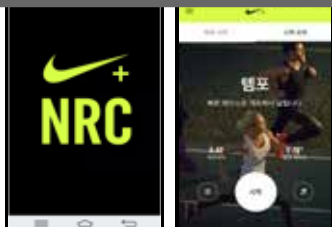
5K



5km부터 차근차근 도전하고 싶다면

- 초보자도 5km까지 쉽게 달릴 수 있도록 훈련 설정
- 걷기와 달리기 반복을 통한 훈련
- 진행 과정 추적

Nike+ Run Club



SNS로 훈련 상황을 공유하고 싶다면

- 가이드 및 트레이닝
- 사진 공유 기능 통한 지속적 동기부여
- 챌린지를 통한 비교 및 경쟁 🏃

신뢰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한 걸음 더

'ISO통합경영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첫발

우리 회사는 한국표준협회(KSA)와 손잡고 경영시스템 정비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미 있는 행보를 시작했다. 기존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OHSAS18001(안전경영시스템)의 인증 갱신 및 전환과 ISO22301(BCM, 비즈니스연속성경영 시스템)의 신규 인증 심사에 앞서, 각 인증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운영·관리하는 'ISO통합경영시스템' 구축에 돌입한 것이다.

지난 3월 10일, 'ISO통합경영시스템' KICK OFF 행사를 위해 100여 명의 직원들이 서창공장 6층 대강당에 집결했다. 국내 사업장을 화상 연결하여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성우하이텍은 2020년까지 국내외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ISO 인증을 위한 통합 프로세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번 ISO통합경영시스템 구축은 국제표준의 개정과 신규 제정에 따른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계획되었다. 2015년 ISO14001이 경영시스템표준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HLS(High Level Structure)를 적용하여 개정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OHSAS18001이 국제표준화 되며 연내에 ISO45001로의 신규 제정을 예고함에 따라 기존의 인증을 갱신해야 할 상황이다. 또한 최근 자동차산업에서 꾸준히 요구되고 있는 ISO22301의 성공적인 신규 인증을 위해 이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졌다.

신규 인증을 추진하는 ISO22301은 재난 및 사고로 인한 기업의 비즈니스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규격이다. 재난 발생 시 생산시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여 납품 지연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자동차산업은 대형 재난으로 부품업체들의 공급과 완성차의 생산이 중단될 경우 국가 경제까지 큰 타격을 입는다는 점에서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이는 곧 기업의 신뢰도와도 직결되는 문제로 인증의 필요성이 크다. ISO22301인증 획득을 계기로 주요 생산시설 및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성우 임직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성우의
기업 경쟁력을 높여줄
통합경영시스템





내부 인력 양성으로 안정적인 통합경영시스템 운영

ISO통합경영시스템은 ISO표준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프로세스를 단일화하여 업무의 단순화와 효율성을 향상함으로써, 신규 인증을 추진하는 ISO22301(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과 기존 운영 중인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45001(안전경영시스템)의 안정적인 통합운영을 목표로 한다.

진행 단계는 크게 5단계로 나뉜다. 내부 TFT를 구성하고 관리자를 교육하는 추진 준비 단계로부터 시스템 설계 및 개발 단계, 시스템 실행 단계, 시스템 검토 및 보완 단계를 거쳐 마지막 심사/인증 단계를 완료한다. 이번 통합시스템 구축의 핵심은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통합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할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다. 진행 단계를 통해 전문성을 키운 내부 인력은 향후 외부의 도움 없이 통합시스템에 대한 심사 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한다. 이를 위해 내부 심사기간 중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통합시스템의 내용을 조직 구성원이 쉽게 이해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문서화 작업이 병행될 예정이다.

ISO통합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 프로젝트

목표

- ISO22301의 조건을 충족하는 비즈니스연속성 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 획득
- ISO14001(환경)/22301(BCM)/45001(안전)을 반영한 통합시스템 구축
- 통합시스템의 지속적 개선과 유효성을 확보할 내부 전문가 양성

범위

- ISO22301(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 구축 관련 교육
- ISO22301의 실행, 검토 및 평가
- ISO22301 최초 인증 및 기타 전환 심사 수검
- ISO22301 문서화 및 기존 경영시스템과의 통합



ISO인증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에서 안전·보건·환경·에너지·품질 등에 관해 설정한 국제적인 표준기준. 국내제품이 국제기준에도 부합함을 입증하는 기준이다. 국제규격으로 제품이 유지되고 관리되며 환경친화적인 방침을 토대로 기업을 경영할 경우 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더 단단해질 성우의 내일을 준비하며 **다시 한 번 Let's go!**

노사화합 워크숍

노사화합 워크숍이 2월 20일부터 매주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었다(총 10차수).

이번 노사화합 워크숍은 <4차 산업혁명을 앞둔 시대 자동차산업의 미래>와 이를 대비한 <성우하이텍의 신성장동력 구축 방안>, <사내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강연>을 비롯해 <우리 회사 CF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변화된 기업 환경에 대응하여 새 출발

자금력과 저렴한 인건비를 앞세운 중국의 비약적인 발전, 트럼프 당선 후 전 세계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제조업 변화... 최근 자동차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이런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매년 열리는 워크숍이지만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진지했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위기의식이 변화의 밑거름.” 존 코터의 『기업이 원하는 변화의 리더』에 나오는 명문장이다. ‘성공하는 기업은 늘 변화해야 한다’는 말은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지만 관성에 젖은 습관·규범·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쉽지 않다. 그 첫걸음이 ‘위기의식의 공감’이라는 데 착안하여 매주 1일차 저녁에는 도종복 인사정보사업본부장이 <성우하이텍의 당면 과제와 생존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성우하이텍의 대내외 상황을 점검하고, 변화에 유연하면서 단단히 결속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다. 창의적인 발상과 최고의 품질 관리로 최상의 제품을 꾸준히 생산하고 노사화합으로 상생의 가치를 이어갈 때, 찬란히 빛나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성우인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번 워크숍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입을 모아 칭찬한 프로그램은 <우리 회사 CF 만들기>.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사이에 작업을 멈추고 모델의 동작을 연출하

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Stop-motion Animation)’ 기법이 사용되었다. CF 촬영을 위해 제공된 단추, 종이컵, 색종이, 실, 끈 등 다양한 재료들을 받아든 성우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흘렀다. 기획부터 스토리 구성, 촬영과 편집까지 직접 해야 하니 막막할 밖에. 낯선 앱을 사용하는 일, 난생처음 CF감독이 되는 일, 재미난 스토리를 짜는 일, 내용이 잘 드러나게 촬영하는 일 등 어느 하나 익숙한 것이 없다. 성우인들의 이마엔 어느새 식은땀이 맺혔다.

하지만 기왕 하는 것 제대로 해내는 것이 성우인들의 저력 아니던가. 처음엔 갈피를 못 잡던 성우인들은 차차 아이디어를 내고 기발한 모형을 만들었다. 촬영자와 모션 연출자의 손발도 귀신같이 맞아떨어졌다. “음악 삽입은 어떻게 합니까?”, “동작을 더 자연스럽게 연출하고 싶습니다.” 여기저기서 터지는 질문 세례에 강사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질문과 답이 쌓일수록 완성도가 높아졌고, 성우인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드디어 완성된 CF를 선보일 시간. 4시간의 정성이 단 15초의 CF에 모두 표현된 것은 아니지만 성우인들의 가슴으로 뿌듯함이 퍼져나갔다. CF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즐거움으로 남았기에 다른 팀의 결과물에도 격려가 담긴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공동 미션 수행을 통해 동료애를 북돋은, 과정의 소중함이 컸던 프로그램이었다.

외부 환경의 변화로 어느 때보다 노사 간의 소통과 화합이 필요한 시기. 그 중요성을 일깨워준 이번 워크숍은 성우하이텍을 더욱 단단히 엮어줄 것이다.

성우인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열전

기계를 다루던 투박한 손으로 색종이와 가위를 들고 익숙지 않은 가위질을 한다.

종이컵을 오리고 단추와 코르크 마개를 여기저기 붙여 그럴싸한 모형을 만드느라 진땀이 나는 중에도

입가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들여 슈트를 짓듯

한 과정 한 과정 공을 들여 탄생한 스톱모션 CF.

성우인들의 아이디어가 별처럼 빛난 성우하이텍 CF의 면면을 살펴보자.

(3월 14일 4차수 교육 조별활동)

1조 <Let's go 성우>

성우하이텍의 차체로 조립한 자동차와 그렇지 않은 자동차와의 한판 경주가 시작된다. 대포가 되어 날아드는 외부의 공격에 다른 자동차들은 하나둘 망가지고 마는데... 과연 성우하이텍은? 대포를 막아줄 방패 등장! 뛰어난 대처 능력을 보인 성우하이텍은 여유롭게 결승선을 통과한다. '세계 최강 자동차 차체 부품 회사' 성우하이텍의 저력을 강조한 작품이었다.



2조 <가족을 위해 오늘도 안전과 싸운다>

2조의 주인공은 안전을 책임지는 망치소년 김안전. 안전을 위협하는 악당 CO₂가스, 로봇, 불량 작업자에 맞서 싸움을 벌인다. 마치 어릴 적 오락실 게임을 보듯, 망치소년의 공격에 로봇이 망가지고 악당이 쓰러지는 모습을 재미있게 연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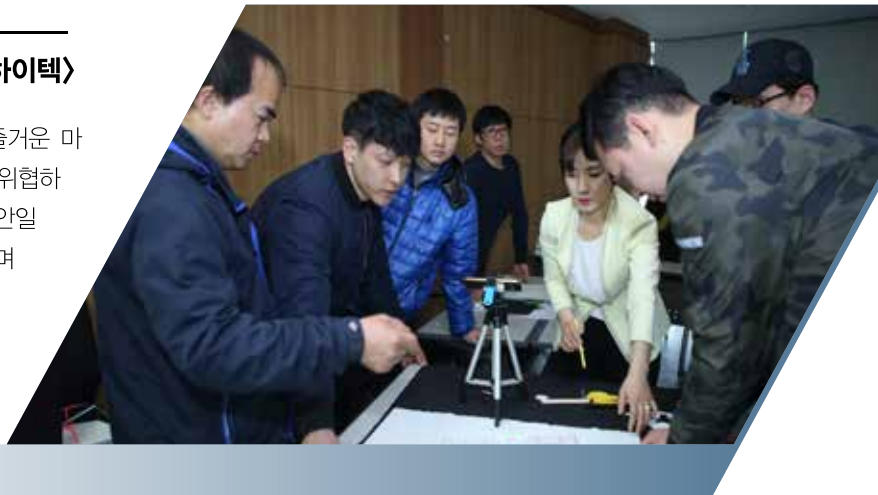


3조 <위기 극복 성우라이더>

뛰어난 기술력으로 힘차게 달려온 성우라이더. 4차 산업혁명, 미국발 위기, 사드 같은 상황들이 미래를 향해 달리는 성우라이더를 막아선다. '노사 화합!'이라는 뛰어난 기술을 발휘해 위기를 돌파하는 성우라이더! 노사화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 연출이 탁월했다.

4조 <안전하고 즐거운 나의 일터, 성우하이텍>

4조의 주제는 안전하고 즐거운 일터.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하는 성우인들 앞에 안전한 일터를 위협하는 적이 나타났다. '나만 아니면 돼' '설마' 하는 안일한 생각들이 그것. 나의 안전이 회사의 안전이며 가정의 평화라는 메시지를 주었다.



5조 <환상의 조합, 성우 분식>

화합을 주제로 만든 5조의 작품. '잘 말아줘~ 잘 눌러줘~' 익숙한 배경 음악과 함께 분식의 대표 메뉴들이 등장한다. 떡볶이, 튀김, 어묵, 그리고 김밥! 분식의 메뉴들이 조화를 이루듯 성우의 직원들도 화합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만드는 과정 등 분식 메뉴를 만드는 다양한 연출을 통해 재미를 주며 많은 박수와 호응을 얻었다. 



봄맞이 주말농장 나들이
“성우 주말농장에 봄이 왔어요!”

김해시 대저면 한적한 부지에 자리한 성우하이텍 주말농장이 오랜만에 시끌시끌하다.
지난 가을 심은 마늘은 벌써 푸릇한 잎이 한 뼘은 자라났고, 겨우내 찬바람을 이겨낸 시금치는 단맛이 한껏 올랐다.
새 작물을 심기 전 땅고르기 밑작업과 씨감자 파종 작업을 위해 주말농장을 찾은 성우인들.
가족과 함께하여 더 의미 있었던 주말농장 체험 현장을 찾았다.



01



02



03



온가족이 함께하는 생생한 체험 현장

박현준 책임연구원과 최성욱 기장은 2012년 성우하이텍 주말농장이 처음 마련되었을 때부터 인연을 이어왔다. 시간이 날 때마다 농장을 찾다 보니 옆 이랑에서 작물을 기르는 사원 가족들과도 반갑게 인사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박현준 책임연구원(선행기술팀)은 어머니와 두 아들 지환(10세) 군·준성(5세) 군 3대가 함께였고, 최성욱 기장은 장인장모와 아내가 함께했다. 벌써 5년차에 접어들다 보니 절기에 따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는 이맘때는 땅을 골라 산소를 공급해주고 비료를 뿌려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밀착업이다. 삽으로 땅을 뒤적이고 가래로 고루 퍼주는 박현준 책임연구원 옆에서 지환 군과 준성 군이 열심히 아빠를 돕는다. 고사리 손에 큼직한 장갑을 끼고 집중해서 땅을 고르는 얼굴에는 진지함마저 엿보인다.

“농사는 정성이 반입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어 보살펴줘야 하거든요. 온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은 보람을 공유하는 게 좋아서 매년 농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돈 주고는 사지 못할 소중한 시간이지요.”

아이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쌓게 해주는 것은 텃밭 경작의 또 다른 이점이다. 아이들은 손발 맞추어 파종을 하고, 퇴약별 아래 김을 매고, 작물들을 거둬들이는 생생한 경험을 통해 먹거리의 소중함을 체득한다. 지렁이나 두꺼비처럼 도시생활을 하며 좀처럼 보기 힘든 텃밭 동물을 만나는 것 또한 잊지 못할 추억이 된다.

- 01 비료 뿌리기 작업
- 02 양파 수확
- 03 땅 돌우기 작업



햇수로 5년, 성우 가족 보물창고

최성욱 기장(지사 조립계)은 텃밭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농사에 관한 한 문외한이었다. 어떤 작물을 언제 심어야 할지, 어떤 작물이 텃밭에서 잘 자라는지 거의 아는 바가 없었다. 그래서 처갓집에 SOS를 요청했다. 전라도 출신인 장인장모님께서 농사의 기본부터 소소한 것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5년간 이어오기도 힘들었을 테다. 이젠 텃밭 한 편에 작은 공간을 따로 마련해 평상을 설치하고 농기구를 보관할 만큼 텃밭과, 그리고 가족과 더 가까워졌다.

감자 심는 간격까지 꼼꼼히 챙기는 장인어른의 지휘에 따라 세 이랑이나 되는 감자 파종 작업도 금세 끝났다. 5년간 손발을 맞추어온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저희 가족에게 텃밭은 마치 보물 창고 같습니다.

재작년 김장을 할 땐 김장배추, 대파, 마늘, 무, 양파 등 웬만한 재료들은 모두 이곳에서 공수했죠. 텃밭 경작을 하면서 가족 간 정도 더 끈끈해졌으니, 이런 보물창고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마련해준 텃밭이 가족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보물 창고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07



08



- 04 오늘 심을 씨감자
- 05 땅 고르기 작업이 한창인 준성 군
- 06 파릇하게 올라온 마늘순
- 07 김장배추 수확
- 08 알 굵은 무



이랑이랑 풍성한 작물들

가장 뿌듯한 순간은 정성으로 길러낸 작물을 거두어들일 때다. 씨알 굵은 감자·고구마가 호미질 몇 번에 주렁주렁 달려 나오고, 단단하게 잘 여문 마늘을 뽑아낼 때면 입가엔 절로 미소가 그려진다. 그럴 땐 한여름 김매며 흘린 땀과 수많은 호미질 삽질의 노고를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다.

“들쭉날쭉하고 못생겼지만, 크기도 크고 맛도 좋습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키워서 믿을 수 있구요.”



상추, 대파, 오이, 가지 같은 기본적인 텃밭 작물부터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울토마토와 참외, 주말농장 작물로는 잘 기르지 않는 더덕, 도라지, 하수오, 와송까지 이곳에서 기르는 작물은 종류도 다양하다. 봄부터 늦가을까지 밭에서 수확하는 다양한 작물들 덕분에 밥상은 언제나 푸지다.

올해 가을엔 또 어떤 보물들이 성우인의 공간을 풍성하게 채워줄까. 이랑이랑 가득한 보물을 거두어들일 가을이 기다려진다. 



변화를 불러오는 힘,

창의적 아이디어

작은 룰 변화가 가져온 흥행

“농구가 인기 스포츠가 된 것은 ‘공격제한시간 24초 룰’이라는 것을 도입하면서부터다.”

24초 룰이란 공격하는 팀은 24초 안에 슈트를 던져야 한다는 규칙이다. 이것은 미국 프로농구 NBA가 극심한 침체기에 빠져있었던 1954-1955 시즌에 도입된다.

당시 NBA에서는 경기를 앞서고 있는 팀이 공을 계속 돌리며 시간을 끌고, 그것을 막기 위해 상대팀은 과격한 파울을 하는, 승리만을 위한 재미없는 게임이 전개되고 있었다. 관중들은 농구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 농구는 재미없는 스포츠로 전락했고, NBA는 존폐위기에 몰려 있었다.

당시 볼링장을 경영하던 대니 비아손이라는 사람은 1,000달러에 시라큐스 내셔널스팀을 인수하며 경기 룰 하나를 제안한다. 그것이 바로 공격제한시간 24초 룰이었다.



공격제한시간이 있으면 더 많은 슈트를 던지며 더 많은 점수가 나는 경기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앞서고 있는 팀이 공을 계속 돌리는 지루한 경기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 룰 하나가 농구 경기의 스타일을 통째로 바꿨다. 경기는 다이내믹해졌고 재미있어졌다. 경기장에는 관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NBA 흥행의 전환점이 되었다. 룰 하나가 농구 경기를 재미있게 만들었고, 프로농구의 흥행을 만들었다. 스포츠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다.

아이디어를 만드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특정한 사람을 떠올리며,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다. “만약, 스티브 잡스라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 이순신 장군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 돌아가신 창업주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와 같은 질문을 해보는 것이다.



큰 변화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된다

위기의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를 직면할 때, 우리는 대대적인 수술을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큰 변화는 언제나 작은 아이디어 하나에서 시작된다.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사소한 아이디어를 찾아보자. 변화를 가져올 사소한 아이디어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질문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1985년 위기를 맞았던 인텔(Intel Corporation)의 사례를 살펴보자.

1985년 인텔에 위기가 찾아왔다.

메모리칩 시장의 경쟁과다와 일본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텔의 이익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인텔의 최고 경영자였던 앤디 그로브와 고든 무어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둘은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극복해야 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략이 필요했다.

하루는 그로브가 무어에게 물었다. “만일 우리가 해고되고 새로운 CEO가 온다면 그는 무슨 일을 할까?”

그로브의 질문에 무어가 대답했다. “어려운 메모리칩 사업에서 손을 떼고 비메모리칩 사업에 집중하겠지!”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것을

느꼈다. 그로브가 무어에게 말했다. “그럼, 새로운 CEO가 오면 할 일을 우리가 하면 어떨까?”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메모리칩 사업에서 손을 떼고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탄생시켰던 것이다.

아이디어를 만드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특정한 사람을 떠올리며,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다. “만약, 스티브 잡스라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 이순신 장군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 돌아가신 창업주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와 같은 질문을 해보는 것이다.

때로는 사람만이 아닌 회사를 넣어서 질문을 해도 좋다. “구글(Google)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삼성전자라면 우리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까?”, “BMW라면 우리의 신상품을 어떻게 마케팅 할까?”와 같은 질문을 해보는 것이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훑치는 것이다.



위기의 다른 이름 '기회'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면, '기회'라고 생각해야 해! 쉬운 문제나 평범한 문제는 다른 친구들도 모두 풀잖아. 성적의 차이가 생기는 건, 어려운 문제에서야. 결국 어려운 문제가 성적의 차이를 만들 기회인 것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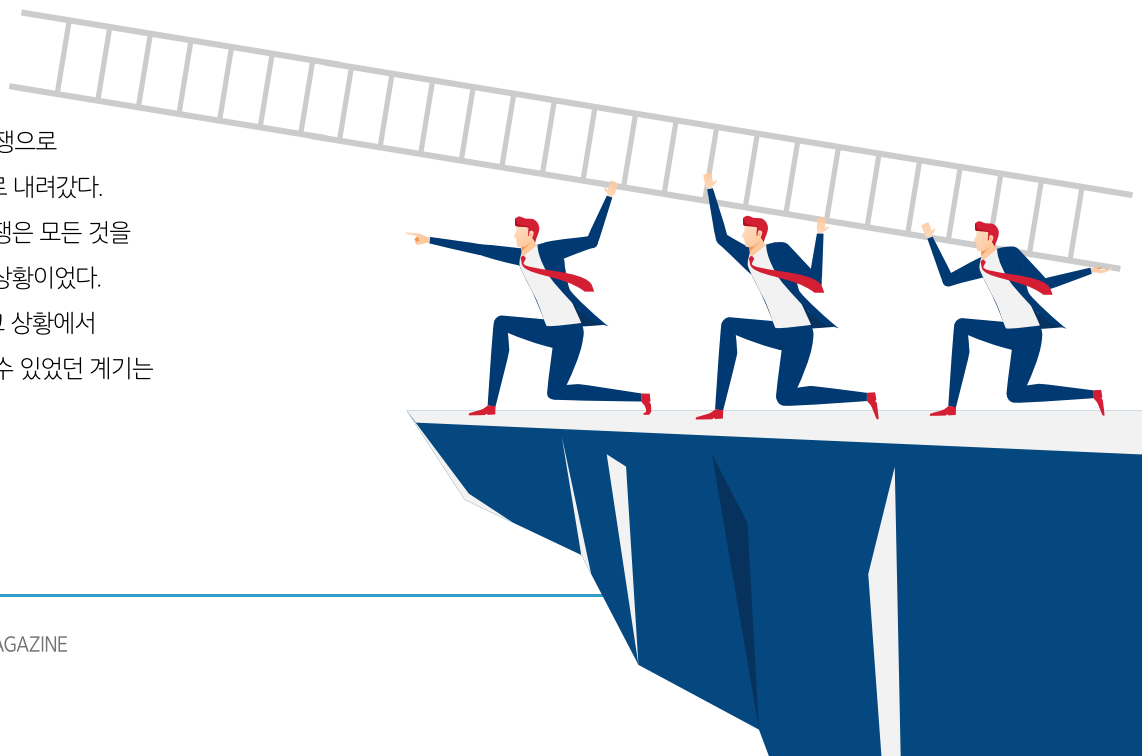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다. 실제로 어려운 위기의 상황이 우리에게도 기회가 된다. 삼성그룹의 성장스토리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꾼 아이디어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다. 전쟁은 국토를 초토화시켰다. 국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재산을 잃고 희망을 잃었다. 당시 삼성물산을 세운 이병철은 1950년 3월 결산으로 1억 2,000만 원의 이익금을 남겼다고 한다.

그러나 한창 잘나가던 그는

1950년 6월에 터진 전쟁으로 빈털터리가 되어 대구로 내려갔다. 서울은 함락당했고, 전쟁은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이병철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는 '고철장사'였다.

삼성물산은 전쟁 중 고철을 수집해 일본에 내다 파는 사업을 시작한다. 포탄껍데기, 망가진 군용차량, 폭격 맞은 공장기계들 등, 땅 바닥에 나뒹구는 고철을 주워 일본에 수출했다. 당시 일본은 한국전쟁의 반사이익으로 고도경제성장기를 달리고 있었고, 쇠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었다. 삼성물산은 일본에 고철을 팔아서 받은 달러로 홍콩에서 설탕과 비료를 수입했다. 전쟁 중 모든 물자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들여온 생필품들은 들어오는 대로 팔려나갔다. 돈이 들어오는 대로 더 많은 설탕과 비료를 수입했고 이병철은 1년 만에 60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한다.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는 말처럼, 큰 위험과 큰 기회는 항상 같이 온다. 큰 위험을 피하는 길은 같은 상황을 큰 기회로 보도록 관점을 전환하는 것뿐이다.





박종하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수학과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15년간 창의력에 관한 대중적인 책을 쓰며 강의를 하고 있다. 여러 매체를 통하여 창의력에 관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으며 '박종하 창의력연구소' 대표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다르게 생각하는 연습』, 『아이디어 요리하는 아이디어』, 『수학, 생각의 기술』 등 다수가 있다.



역발상

아이디어의 힘

흔히, 위기를 '위험한 기회'라고 한다. 무언인가 불안정한 상황에 오히려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뒤집는 역발상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보자. 역발상의 아이디어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 1991년 일본의 대표적인 사과 산지인 아오모리현에 엄청난 태풍이 몰려왔다. 사과 수확을 앞둔 시기에 불어 닥친 태풍으로 90%의 사과가 땅에 떨어졌다. 모두 망연자실했다. 모두 절망하고만 있을 때, 한 청년이 아이디어를 냈다. 남아 있는 10%의 사과를 '거센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행운의 사과'로 팔자는 것이었다. 입시철 그들은 그 사과에 '합격기원 사과'라고 이름 붙여 기존 가격의 10배에 팔았다. 판매는 대성공이었다. 친구에게 또는 조카에게 선물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합격기원 사과를 샀다. 합격기원 사과는 불티나게 팔렸고, 태풍으로 본 피해를 모두 만회하고도 남았다고 한다. 평온하고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특별한 기회도 없다. 모든 기회는 불확실하고 때때로 위기라고 느껴질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위기를 기회로 뒤집는 역발상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보자. 🌈

Thank You, Sungwoo

1%의 나눔이 만드는 1000%의 행복 ‘성우공동모금’

지난 3월, 성우하이텍 서창 사업장으로 작은 박스 하나가 배달되었다.
예쁜 리본과 하트로 꾸며진 상자를 보니 왠지 모를 기대감이 부풀어 오른다.
그리고 상자를 열어본 순간, 기대감은 감동이 되어
가슴 한 구석을 따뜻하게 채우며 퍼져나간다.

자발적 참여로 더 의미 깊은 나눔

상자를 보낸 곳은 서창 사업장 근처의 서창초등학교. ‘성우공동모금’을 통해 장학금을 전달받은 학생들이 손수 감사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다.

지난 2010년부터 실시한 ‘성우공동모금’은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 급여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성우공동모금 통장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모인 금액은 사업장 인근 초등학교에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미래 세대인 아이들을 위해 모으는 기금이다 보니 직원들의 반응도 적극적이다. ‘성우공동모금’은 이처럼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의 사회공헌활동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한층 더 의미 깊은 나눔을 실천하며 성우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했다.

영동함과 발랄함 가득한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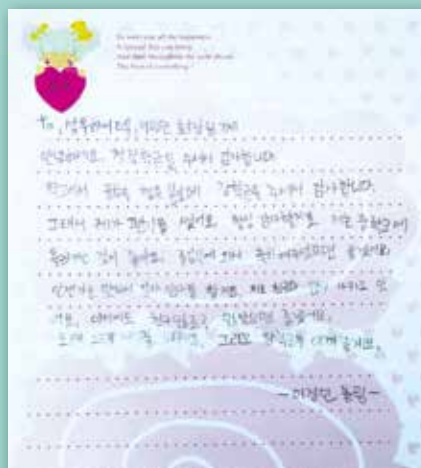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 쓴 편지에는 아이들의 순수함과 감사의 마음, 미소를 절로 짓게 하는 영동함이 곳곳에 담겨 있다. 난생처음 장학금을 받았다고 뿌듯해하는 아이,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아이, 힘들게 번 돈을 장학금으로 기부해주어 감사하다는 아이들의 편지를 읽어 내려 가다 보면 뿌듯함과 감동이 한층 더 커진다. 아이들 특유의 영동함과

순수함, 발랄함이
담뱃 담긴 편
지를 소개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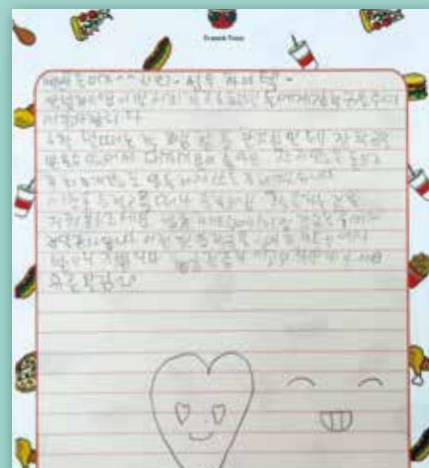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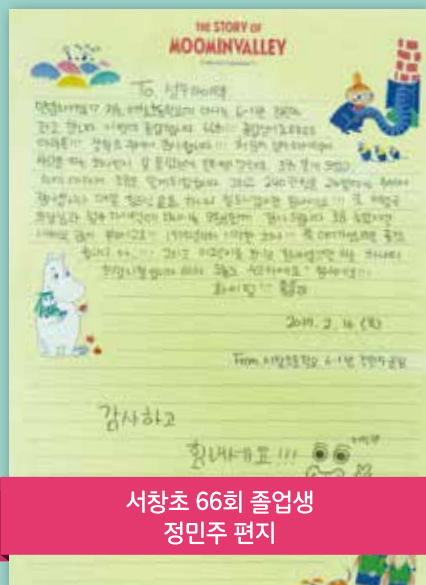
서창초 66회 졸업생
박정민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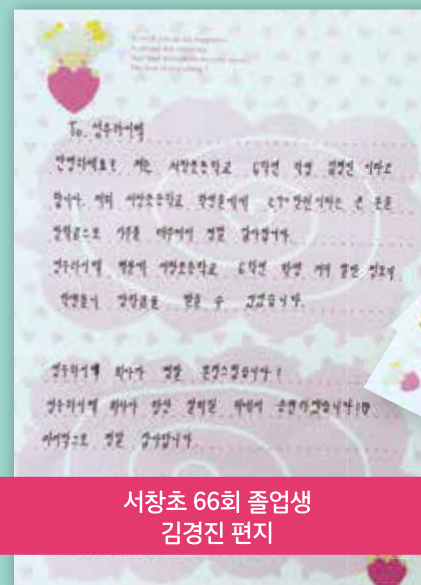
서창초 66회 졸업생
이정민 편지



서창초 66회 졸업생
유준 편지



서창초 66회 졸업생
정민주 편지



서창초 66회 졸업생
김경진 편지



클래식 음악과 채식으로 함께하는 건강 콜라보레이션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김민석 박사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로비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희망의 음악회’가 열린다.
2012년 시작된 ‘희망의 음악회’는
지난 3월 300회를 맞이했다.
병원 로비에서, 그것도 순수 클래식 공연만으로
채워진 300회 공연.
지역 음악가들 사이에서 한 번쯤 서고 싶은
무대로 성장한 이 공연의 기획자,
바로 병리와 김민석 박사다.



클래식 해설하는 의학박사

김민석 박사의 하루는 지인들에게 메일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날 들을 클래식 음악을 선택하여 직접 쓴 곡 해설과 짝막한 글을 덧붙여 발송한다. 벌써 몇 년째 매일 해오는 일이라 하루 이틀 메일을 받지 못하면 지인들이 안부를 물어올 정도다.
병리학자로서 병원 일밖에 몰랐던 김민석 박사가 클래식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으로 발령을 받으면서였다. 더 직접적으로는 로비에 들인 피아노 한 대가 계기였다.

“기왕 피아노를 들였으니 프로 연주자를 섭외해 음악회를 열어보자 싶었습니다. 연주자 섭외가 난항이었죠.”

김민석 박사는 직접 발로 뛰었다. 지역의 각종 연주회를 찾아다니며 연주자들과 연을 쌓고 연주자들의 후원자가



됐다. 콘서트 초반에는 클래식을 낯설어하는 환자들을 위해 클래식 해설을 자처했다. 이처럼 시작부터 그의 손길이 하나하나 닿았기에 ‘희망의 음악회’에 대한 김 박사의 애정은 남다르다. 300회 공연을 이어오면서 여전히 지키는 철칙이 있다. 이 무대에서는 오직 정통 클래식만 연주한다. 대중음악에 밀린 클래식 음악이 설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였다. 지역에서는 잘 찾아보기 힘든 관객이 보장되는 정기무대. ‘희망의 음악회’는 이제 한 번쯤 서고 싶은 무대로 입소문이 났다. 꾸준히 이 무대에 선 현악 4중주단 ‘클레다 파르텟(CLEDA String Quartet)’은 벌써 7회째 정기 연주회를 열었다.

“병리학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클래식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두통의 증상을 완화하고, 불면증에도 도움이 된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죠. 암 전문 병원인 이곳의 환자들에게도 분명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김민석 박사

서울대학교 의학과/석사/박사 취득 후
국군원주병원 병리과장(1999년~2000년),
국군서울지구병원 병리과장(2000년~2002년),
한국원자력의학원 병리과 전임의(2002년~2003년),
한국원자력의학원 병리과 과장(2003년~2010년)을 거쳐
현재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병리과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로비에서 매주 열리는
‘희망의 음악회’를 기획해 300회차 넘게 이어오고 있으며,
다양한 강연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한다.
대한병리학회 · 대한암학회 · 대한유방암학회 정회원이다.

공부의 완성, 강연

김민석 박사는 강연자로 또한 정평이 나 있다. 지난 10년간 대략 200여 차례 강연무대에 섰고 무료 강연도 마다하지 않는다. 건강 강연이 주가 되다 보니 회사원, 스님, 암 환자, 농민 등 청중의 면면도 다양하다.



“초등학생부터 전공자까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강연을 하는 게 목표예요. 빠르게 변하는 병의 판도를 이해하고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를 해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제게 강연은 ‘공부의 완성’입니다.”

또 하나의 목표는 지루하거나 딱딱하지 않은, 청중들이 웃을 수 있는 강연을 만드는 것. 청중 구성에 따라 레퍼토리를 달리 하고 적절히 개그 코드를 섞어 웃음을 이끌어내는 노력에 청중이 먼저 알아보고 재강의 요청을 해온다. 물론 하루아침에 가능해진 일은 아니었다. 김민석 박사는 강연을 녹화해 영상을 돌려보며 부족한 부분을 찾고 청중의 반응을 체크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청중과 가까워지고 어려운 의학 분야를 좀 더 쉽게 전하는 법을 체득하게 된 것이다. 스스로 재미를 느끼지 않았다면 그저 수고롭게 느껴졌을 일이었다.

“청중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다는 생각으로 재미있는 강연, 쉽게 이해가 되는 강연을 준비합니다. 제게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취미생활 같죠.”

김 박사는 강연 무대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장내세균에게 섬유질 밥을 주세요

다양한 활동을 열정적으로 해내지만 김민석 박사의 눈이 가장 빛이 날 때는 역시 병리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이다. 병의 이치를 구하는 병리학자. 그에게 ‘암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법’을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간단명료했다.

“장내세균을 잘 먹이면 됩니다.”

암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다.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을 꾸준히 이어온 결과 병증이 나타난다는 것.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병 빈도가 높은 아토피 · 알레르기성 비염 · 천식 등의 면역성질환과 대장암 · 유방암 등 서구식 식습관에 따른 암, 과잉행동장애 · 자폐증 · 우울증 같은 정신과질환들의 원인도 환경 때문이다. 이때의 ‘환경’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자연환경만이 아니라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화학물질을 비롯해 세균 등 미생물도 해당된다. 이 중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로 우리 장 속에 사는 ‘장내세균’이다.

“우리 장 속에는 1,000여 가지의 장내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100조 마리에 이르는 이 세균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장내세균과 건강의 연관관계는 ‘인간 미생물군집 프로젝트’의 연구를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에 따르면 장내세균이 건강하게 부지런히 활동할수록 우리 몸에 활력이 돌고 건강해진다. 장내세균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김민석 박사의 대답처럼 잘 먹어야 한다.

“장내세균의 먹이가 되는 것이 섬유질입니다. 바로 이 섬유질이 다량 함유된 음식,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먹으면 됩니다. 장내세균이 좋아하는 채소, 나물, 버섯, 해조류, 잡곡 같은 식재료가 식탁에 자주 오를수록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강조하며 김민석 박사는 스스로를 ‘채식권유자’라 칭한다. 굳이 채식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장내세균을 위해 많이 섭취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유방암, 대장암 등의 발병률이 높아지는 원인도 육식과 밀가루음식 등 섬유질이 부족한 서구식 식생활로 변한 데 있다고 김민석 박사는 말한다. 이에 더해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고 수면시간을 8시간 정도로 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클래식 음악에 대한 애정, 수많은 강연 무대에 서는 노력, 병의 이치를 구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전문가로서의 열정은 서로 다른 악기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화음처럼 김민석 박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고 있다. 매일 그에게서 온 메일을 클릭하며 설렘을 느끼는 이유다. 

김민석 박사가 추천하는 건강한 식생활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많이 | 과일과 채소, 곡류, 버섯, 해조류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장내세균이 잘 먹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음식을 많이 섭취하세요.

밥이 보약 | 말 그대로 ‘밥이 보약’입니다. 밥 세 끼만 제대로 챙겨 먹어도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밀가루는 쌀에 비해 섬유질 함량이 현저히 낮아서 빵이나 국수, 라면을 권하지 않습니다. 쌀밥보다는 현미, 보리, 콩 등을 넣은 잡곡밥이 장내세균을 위해 더 좋습니다.

장내세균을 죽이는 음식 피하기 | 항생제나 이에 오염된 육류 및 수산물과 탄산음료, 술 등은 장내세균을 병들게 합니다. 지방질과 단백질(특히 육류)은 소화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독소를 만들어 장내세균에 해를 끼치기도 하죠. 이런 음식은 되도록 멀리하고 과식하지 마세요.

딱딱하게 굳은 뇌를 말랑말랑하게!

찌뿌드드한 몸을 풀어주듯, 우리 뇌도 다양한 생각을 통해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언어, 수리, 추리, 넌센스 등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줄 문제들을 풀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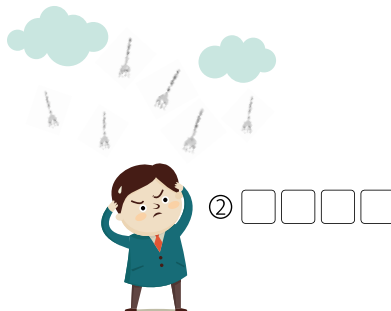


Quiz

1. 다음 두 사진을 보고 다른 곳을 7군데 찾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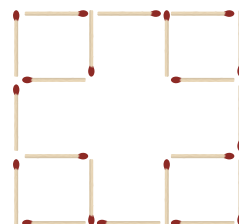
2. 다음 제시된 그림을 보고 연상되는 단어를 맞히세요(넌센스).



3. 길이가 똑같은 6개의 성냥개비가 있습니다.
이를 연결해 정삼각형 4개를 만들어보세요.



4. 성냥개비 4개를 옮겨서 정사각형 5개를 만들어보세요. 성
냥개비를 부러뜨리거나 겹치면 안 돼요.



5. 다음에 제시된 글자를 보고 속담을 유추해보세요.
(7글자, 8글자, 10글자)

ㄱ	ㅁ	ㅌ	ㅣ	ㅋ	ㄷ	ㅌ	ㅊ	ㄱ	ㅁ	ㅌ	ㅣ
ㅇ	ㅈ	ㅊ	ㅡ	ㅇ	ㄹ	ㅌ	ㅊ	ㅇ	ㄹ	ㅎ	ㅡ
ㅈ	ㅊ	ㅌ	ㅌ	ㄷ	ㄱ	ㅌ	ㅌ	ㅈ	ㅊ	ㅌ	ㅌ
ㄴ	ㄷ	ㅌ	ㅌ	ㄴ	ㅊ	ㅁ	ㅣ	ㄴ	ㄷ	ㅌ	ㅌ

6. 스도쿠 문제입니다. 빈 칸을 채워보세요.

9	5	3	4	6			1			5				9		3	6
6	8		3	1	2	4	9			2							7
	1	2	5		9	6		3			9	8	7	2	3		4
1	9	6	2	8	3	7					3			1		4	5
7	3	8	6	4	5			1		4		2		6			1
	2		7	9			3	6		9						7	
2	7		1	5		3	4				8	9	5	3	6		4
			9	3	7	5					2	5			9	6	7
3	6		8				7			1	6			7	8	5	

7. 규칙에 따라 물음표에 들어갈 것은 무엇일까요?



8. 규칙을 찾아 다음 괄호에 들어갈 숫자를 맞춰보세요.

- ① 1130, 1031, 930, 831, (), (), 531, 430, 331, 228, 131
- ② $8 + 2 = 10$ ③ $9 = 72$
 $3 + 11 = 2$ $7 = 42$
 $9 + 4 = 1$ $6 = 30$
 그렇다면 $5 + 9 = ()$ $5 = 20$
 $3 = ()$

9. 제시어를 보고 공통으로 연상되는 단어를 맞춰세요.

- ① 앤디워홀, 지하철 환풍구, 금발, 존F. 케네디
 ② 우사인볼트, 빨간색·노란색·초록색, 블루마운틴, 밥 말리
 ③ 주피터, 알츠하이머, 차이코프스키, 천안
 ④ 이효석, 웰컴투동막골,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2018
 ⑤ 24, 영국, 6명, 코드명

10. 검은옷과 흰옷, 회색옷을 입은 천사와 악마와 인간이 신 앞에 있습니다. 악마는 거짓말만 하고, 천사는 진실만 말하며, 인간은 진실도 거짓말도 말합니다. 누가 천사, 악마, 인간일까요?

- 검은옷 : 나는 천사가 아닙니다
- 흰옷 : 나는 악마가 아닙니다
- 회색옷 : 나는 인간이 아닙니다

11. 제시된 초성을 보고 단어를 유추해보세요.

- ① 뽀지ㄴㅈ표ㄴㅈ ② ㅇㅎㅌㅌㅌㅌㅌ
 ③ ㄷㄹㅌㅌㅌㅌㅌㅌㅌ ④ ㅇㅇㅌㅌㅌㅌㅌㅌㅌ
 ⑤ ㅇㄱㅎㄴㅌㅌㅌㅌㅌ

12. 다음 제시어를 보고 공통 연상 단어를 맞춰세요.

- ① 시는 있고 소설은 없다 ② 물은 있고 불은 없다
 벽은 있고 문은 없다 갓은 있고 상투는 없다
 해는 있고 구름은 없다 백은 있고 흑은 없다
 모래는 있고 바위는 없다 총각은 있고 처녀는 없다

13. 이것은 무엇일까요?

- 5는 0을 이기고
 0은 2를 이기고
 2는 5를 이깁니다.

14. 1, 2, 3, 4, 5, 6, 7, 8, 9, 10으로 시작하는 사자성어 10개를 만들어보세요. 15초 안에 10개를 만들어보세요.

※ 정답은 56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낭만과 동심이 가득한 동화의 나라~

쁘띠프랑스와 나미나라공화국!

네가 걸을 때 난 너의 발을 부드럽게 받쳐주는 흙이 될 거야.
네가 앉을 때 난 너의 무릎 밑에 얹드린 넓고 평평한 그루터기가 될 거야...
- 영화 <편지> 중

영화 <편지>의 촬영지였던 경강역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에 있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이제부터 이곳은 여행을 떠날 우리에게 마법의 나라로 인도하는 해리 포터의 9와 4분의 3 승강장을 대신한다.
이 역을 중심으로 가평의쁘띠프랑스와 춘천의 나미나라공화국(남이섬)이 신비롭다.
낭만과 동심을 채집하는 여행을 떠나보자. 신비롭고 아름다운 환상의 나라로!

01





02



03



04

어린왕자가 살고 있는 뽀띠프랑스

한국 안의 작은 프랑스 마을. 동심과 행복은 이곳의 주요 생산품이다. 봄철 한창 꽃이 피어나 파스텔 톤 마을에 알록달록 색을 덧입혔다. 프랑스 남부의 전원마을을 재현하여 마치 영화 <미녀와 야수>의 동화 같은 프랑스 마을이 연상된다. 어디선가 야수와 사랑에 빠진 미녀 벨이 나타나 노래하며 뛰어다닐 것만 같다. 거리의 악사가 연주하는 아코디언 소리는 어서 빨리 행복을 생산해 내라고 재촉하는 듯 마음을 설레게 한다. 골동품을 취급하는 '엔틱 벵룩시장' 앞에 있는 야외공연장에서는 '마리오네트 댄스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인형은 마이클잭슨의 음악에 맞춰 문 워크를 하고 관객에게 말을 건다. '떼아뜨르 별'극장에서 손 인형극 <기놀이>과 줄 인형극 <마리오네트>가 정기적으로 공연 중이니 제대로 즐겨보기 바란다. 극장을 오르는 골목에는 다양한 전시관이 있다. 어린왕자는 '뽀띠프랑스'의 주요 테마다. 프랑스 '생텍쥐페리 재단'의 정식 라이선스를 받기도 했다. 그 밖에 200년 된 프랑스 전통 가옥을 그대로 들여와 재조립한 주택전시관. 다양한 전통 오르골을 볼 수 있는 '메종 드 오르골', 유럽풍 거실 '썰레 드 세쥬르'가 프랑스와 유럽의 전통 의식주 문화를 보여준다. 전망대에서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마을과 청평호의 어울림이 멋지다. 가만! 정해진 시간 없이 종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진다. 알고 보니 높은 종탑에 위치한 '프로포프의 방'에서 프로포프에 성공한 연인들이 종을 울려댄다. 마을은 환상적인 동화 속 그대로인데 우리 차림새가 영 어울리지 않는다면? 걱정 없다. 동화나라 의상체험은 부족한 2%를 채워준다. 마을 전체가 아름답고 이국적이어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등 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지가 되고 있다. 뽀띠프랑스에서 숙박을 하면 입장료는 없다.

- 01 동화 같은 뽀띠프랑스 거리
- 02 뽀띠프랑스는 어린왕자의 마을이다
- 03 생텍쥐페리 기념관
- 04 거리의 악사와 벵룩시장

“춘천 가는 기차는 나를 데리고 가네
오월의 내 사랑이 숨 쉬는 곳.”
추억의 노랫말처럼 남이섬은 낭만적이다.

꼬마 섬나라 나미나라공화국 Naminara Republic

나미나라공화국은 춘천의 남이섬에 세워진 상상공화국이다. 주요 생산품은 낭만과 추억이다. 찾아오는 전 세계의 여행자 모두가 이 나라의 국민이 된다. 우리나라 안의 꼬마나라임을 표방하며 독자적인 외교문화정책을 펼친다니 이채롭다. 입국장이라 할 수 있는 선착장의 안전요원은 '나미나라폴리스'라고 적힌 제복을 입었다. 정말 작은 섬나라로 여행 온 듯하다.

청평 호수 위 가랑잎처럼 떠 있는 남이섬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어우러져 있다. 외국인 관광객도 많다. 드라마 <겨울연가>의 배경으로 유명세를 떨친 덕이다. 눈 덮인 겨울의 남이섬은 눈부시게 아름답다. 그렇다 해도 사계절 언제나 아름다운 곳이다. '춘천 가는 기차는 나를 데리고 가네 오월의 내 사랑이 숨 쉬는 곳~' 추억의 노랫말처럼 춘천, 특히 남이섬의 봄은 따스한 낭만이 흐른다. 도심에서 쉽게 보기 힘든 청솔모와 다람쥐가 마법세계의 동물인 양 사람을 많이 경계하지 않는다(Tip: 먹이주기가 허용된다. 단 견과류를 직접 챙겨 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작새, 금계, 토끼 등 다양한 동물들이 산책길에서 함께 한다. 메타세쿼이아길, 은행나무길, 잣나무길 강변오솔길 등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뽐낸다. 운치원 놀이터와 그림책놀이터에서 아이들은 해 떨어지는 줄 모른다. 나미나라공화국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클래식연주, 어쿠스틱밴드, 마술 등의 공연과 예술전시, 특히 책에 관한 콘텐츠도 많아 온 가족이 즐겁다. 전기자동차 투어와 유니세프나눔열차 등이 있고 휠체어가 편하게 다닐 수 있어 보행이 어려운 부모님들을 모시고 가도 걱정 없다. 커플은 자전거로 강변을 달리며 낭만적인 추억을 더하자. 별밤의 나미나라를 즐기려면 섬 내에 있는 호텔 정관루에서 1박을 하는 것도 좋다.



- 05 봄 기운 가득한 나미나라공화국
- 06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놀이터
- 07 드라마 <겨울연가>의 흔적들이 곳곳에 보인다



05



06



07

2박 3일 추천코스



Day 1.

09:00 부산에서 출발
15:00 남이섬
19:00 저녁식사
(추천: 남촌막국수 등)
20:00 숙소

Day 2.

10:00 김유정역 레일바이크
12:00 점심 (추천: 앤디스커피앤버거 등)
13:30 뽕띠프랑스
17:30 저녁 (추천: 종가닭갈비막국수)
19:00 숙소 (추천: 뽕띠프랑스)

Day 3.

09:00 아침 (뽕띠프랑스 내에서 가벼운 분식)
12:00 아침고요수목원 혹은 제이드가든
14:30 부산으로 출발

Day 1.

pm 15:00

나미나라공화국

www.namisum.com

운치원 놀이터와 그림책놀이터, 그리고 살아있는 자연환경은 유니세프 어린이 천화공원으로 손색이 없다. 저녁 6시경 편의시설은 문을 닫지만 섬으로 드나드는 여객선은 저녁 9시40분까지 운행되므로 여유 있게 섬을 즐겨도 좋다. (눈사람 아이콘이 그려진 남이섬 앱을 다운받으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저녁 추천- 남촌막국수(033-253-6003)

막국수와 함께 수육을 꼭 먹어야 한다.





am10:00

김유정역에서 포토타임

김유정역은 레일바이크를 탈 수 있는 레일파크가 잘 꾸며져 있다. 사진도 찍고 레일바이크도 즐기자. 근처에는 '김유정문학관'이 있어 들을 만하다. #점심 추천- 앤디스커피앤버거(070-8289-1339) 버거 사진을 sns에 올리면 커피가 공짜



Day 2.

pm13:30

프랑스 남부 동화마을 '쁘띠프랑스'

www.pfcamp.com

어린왕자는 '쁘띠프랑스'의 주요 테마다. '생텍쥐페리 재단'의 정식 라이선스도 있는데, '생텍쥐페리 기념관'은 그의 일생과 작품세계, 친필원고와 삽화를 볼 수 있다.

#저녁 추천- 종가닭갈비막국수(031-585-0877)

가평에 있지만 춘천 출신 주인장이 춘천식 닭갈비요리를 고집하는 숨은 맛집이다. 북한강을 보며 달리는 멋진 드라이브코스를 즐기며 식당을 찾아가 보자.

pm12:00

로봇체험관 & 애니메이션박물관

www.robotstudio.kr

애니메이션 박물관에서는 국내외 애니메이션과 캐릭터들로 전시, 공연, 상영 등을 하고 있다. '구름빵카페테리아'에서는 북한강의 멋진 경관을 즐기며 잠시 쉬어 가기 좋다. 로봇체험관에서는 로봇격투, 로봇축구등을 직접 해 볼 수 있고 인기 로봇들의 전시관이 있다. 시설이 넓고 다양하다.

Tip. 봄을 더 즐기고 싶다면 아침고요수목원이나 제이드가든으로 일정을 맞춰도 좋다. 🌸

Day 3.



130년 역사를 이어온
자동차산업의 생태계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환경문제 대두와 기술 발달에 의해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은
차차 사라지리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
디젤 연료 대신 전기로 움직이고,
운전자 없이 혼자 주행하며,
IT산업과의 연계로
한층 더 똑똑해질 자동차들은
이제 '미래'가 아닌 현재 진행형!
미래형 자동차의 '오늘'을
소개한다.

현재 진행형 미래 자동차의 오늘



세계적 추세

친환경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

점점 심각해져 가는 환경 문제를 인지하고 각국의 정부는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자동차 평균 연비를 법적으로 높게 규제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2020년부터 자동차 평균 연비를 24.3km/l 이상으로 높이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유럽, 미국 등지에서도 2020년을 기점으로 연비 규제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떠오른 친환경 자동차. 그 중심에는 전기자동차가 있다. 기존 디젤 엔진 대신 전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를 도로에서 만나는 일은 어렵지 않다. BMW(BMW i3), 테슬라(테슬라 모델S),

현대(아이오닉 일렉트릭) 등 세계적인 자동차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뛰어들었고 IT 기업인 애플, 구글 등도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알렸다.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는 크게 3가지이다. '충전 시간'은 줄이고, '1회 충전당 주행 거리'는 늘려야 하며, '충전소'는 확충해야 한다. 앞의 두 과제 해결을 위해 업계는 급속충전기술, 무선충전기술, 배터리교환 방식 등 다양한 기술 개발과 함께 경량화 소재 자동차 제작에 힘쓰고 있다. 마지막 과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배터리 충전소 확대를 위한 자원 마련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자율주행차(Self-Driving Car)

1982년에 방영된 인기 TV 시리즈 <전격Z작전>의 팬이라면 인공지능 자동차 '키투(KITT)'에 가슴 설레었을 것. "키투, 도와줘!"라고 외치면 어디서든 달려오던 키투, 머지않은 시간 안에 드라마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될 전망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현재의 자율주행 기술은 주행 시 차선의 이탈을 방지하고 정지 시 앞 차와 충돌을 방지하는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기술 개발 수준은 이를 한참이나 앞선다. 우버, 구글, 로컬모터스 등에서 출시한 자율주행자동차들은 사람의 조작 없이 주행, 차선 변경, 정지, 주차를 하고 있다. 테슬라, 포드 등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도 5년 안에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판을 예고했다. 영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버스가 시범 운행에 들어갔다.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이 커지면서 국가 주도의 인프라 확충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활동들이 그것이다. 자동차산업의 선두주자인 미국에서는 현재 4개 주(네바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미시간)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무인자동차 전용 모형 도시인 '엠시티(M City)'를 출범, 자율주행자동차가 자유롭게 달릴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 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계획하고 올해 12월 판교에서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운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화성시 자동차안전연구원에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인 '케이시티(K-City)'를 조성 중이다. 미국의 엠시티(M City)를 마케팅한 이곳은 버스전용차로, 스쿨존 등 우리나라 교통 환경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했다.



자동차, IT를 입다

스마트카(Smart Car)

바이두(Baidu), 구글(Google), 네이버(Naver), 이들 업체의 공통점은 세계적인 검색사이트라는 점이다. 자동차는 이제 자동차 업계의 고유 영역이 아니다. 미래의 자동차를 빗대어 '바퀴 넷 달린 스마트폰'이라 할 만큼,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이 커졌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으로 자동차산업이 빠르게 스마트화되며 이들 업체는 미래 자동차산업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급부상했다. 소프트웨어의 접목으로 자동차는 스스로 주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컨디션을 체크하여 각 상황에 맞는 기술로 구동되며, 자동차에 장착된 장비들의 상태 및 교체 여부를 스스로 점검한다. 이처럼 소프트웨어가 사람을 대신하여 기능하게 되면서 정밀한 자기 위치 확인, 도로 위 사물 인식, 사물과 사물 사이의 거리 측정 등이 핵심 기술로 떠올랐다. 인공지능(AI), 딥러닝, 빅데이터 분야의 원천기술을 가진 IT업체들이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이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완성차 · 부품 · 반도체 · ICT업체 간 전략적 협업 생태계 구축이 활발해지며 이들 간 M&A(인수합병)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 전장기업인 '하만'을 인수한 데 이어 스마트 카 등 신기술을 보유한 발렌스에 투자를 결정한 삼성전자, 폭스바겐 · GM의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된 LG전자 등이 그 예다. 

역사의 역사 속으로

어느덧 창립
40주년을 맞은 성우하이텍.
성우하이텍이 태동했던
1977년부터 40주년을 맞은
현재까지 어떤 회로애락이
모여 역사가 되었을까?

성우하이텍의 40년 역사를
10년 단위로 나누어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만나보자.
이번 호는 그 두 번째 시간!
1987년 ~ 1996년
까지의 역사를 담았다.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났을까?”,
“그해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문득 궁금증이 일 때,
자녀가 물어볼 때
함께 꺼내어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1987

사건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발생(1월 14일)**
 - “책상을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는 전설적 개드립
- **전두환 대통령, 4·13 호헌조치 발표(4월 13일)**
 - 간접선거제도(소위 ‘체육관 선거’) 유지하겠다는 개헌 요구 거부
- **6월 항쟁: 박종철 고문치사 조작/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6월 10일)**
- **노태우, 6·29 선언 발표(6월 29일)**
 - 당시 노태우 민주정의당(여당) 대통령후보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수용
- **대한민국 헌법 제10호(제9차 개정 헌법, 현행 헌법) 공포(10월 29일)**
-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으로 탑승자 115명 전원 사망(11월 29일)**
 - 북한 김정일의 사주를 받은 김현희가 범인으로 체포. 1990년 3월 27일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4월 12일에 사면 조치됨. 현재까지도 진실에 대한 논란 있음.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드러남.**
 - <그것이 알고싶다> 제932, 977회: 12년 동안 500명 이상 사망. 형제복지원장 아들은 촬영 중 “우리 아버지의 인권은?” 이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발생**
 - 사이버종교에서 운영하던 오대양 공예품 공장에서 발생한 집단자살 사건(32명 사망). 타살 의혹이 있음. 세월호 사건 이후 ‘구원파’ 관련설이 다시 떠오르기도 하였음. 드라마 <시그널>에서 장기미제 전담반 김계철(김원해 분)이 특하면 ‘오대양 사건’을 언급함.
- **26년 만에 서머타임 제도가 부활, 2년 만에 도로 폐지**

해외

- **세계 인구 50억 명 돌파(7월 11일 - 세계 인구의 날)**
- **소련, 서독 19세 청년 마티아스 루스트가**

- 경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착륙**
 - “냉전을 중단시키는 평화의 가교가 되겠다”며, 단돈 1만6천달러짜리 비행기로 핀란드 헬싱키에서 출발하여 750km를 날아 모스크바에 도착할 때까지, 레이더 1만 개, 요격전투기 4,000여 대, 지대공 미사일 1만4,000여 발을 보유한 소련군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함. 소련의 방공망은 무용지물임을 국제적으로 홍보한 사건
- **필리핀, 여객선 도나 파스호와 유조선 벡터호가 충돌하여 4,375명 사망**
 - 비전시 상황에서 일어난 선박 사고 사망자 수 1위, 2위는 르 줄라호(1,863명 사망)

문화

- **롯데지아연초의 최동원 vs. 해태타이거즈의 선동열(영화 [퍼펙트게임] 배경)**
- **천안, 독립기념관 개관(8월 15일)**
- **강수연, 영화 [싸발이]로 44회 베니스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

1988

사건

- **노태우,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취임**
- **대한민국 제5공화국 청문회**
- **지강현 탈주사건 발생(영화 [홀리데이] 배경 /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해외

- **소련,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개방 정책인 페레스트로이카 시작**
- **이란-이라크 전쟁 종결(1980년 ~ 1988년)**

문화

- **MBC에서 ‘내 귀에 도청장치’ 사건 발생**
- **88 서울올림픽 개최**
 -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으로 냉전 종식의 밑거름이 된 역사적인 올림픽
 - 호돌이, 「손에 손잡고」, 굴렁쇠 소년, 평화의 상징 비둘기(이후 닭둘기로 변신!)

- 를 남긴 올림픽
- 대한민국이 금메달 기준 세계 4위에 오른 올림픽(금12, 은10, 동11)
- 아타리 테트리스가 오락실에서 가동
- 브금(BGM)의 중독성은 단연 갑!

1989

사건

- 성우하이텍, 공장신축 이전 (부산시 기장군 정관농공단지)
-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시행
- 대전직할시 탄생(1995년에 '광역시'로 변경)
- 우지 파동
- 잘못된 정보와 보도가 불러 일으킨 대한민국 라면 시장 역사상 최대의 흑역사 삼양식품이 사용하던 2~3등급의 우지는 인체에 무해한 식용기름이었으나, 이것을 공업용이라고 보도함으로써 당시 업계 1위 삼양식품은 문을 닫을 위기까지 갔.

해외

- 중국, 6·4 천안문(텐안먼) 사건 발생
- 중국의 검색엔진에서 텐안먼 사건을 검색하면 접속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5월 35일(5월 31일+4일), VIIV(로마숫자 64), 82(8의 2승, 답이 64=6월 4일) 등을 은어로써 사용하기도 한다.
-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



-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
- 냉전 시대 종말의 서막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

문화

- 보이저2호, 해왕성 탐사
-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 뇌졸중으로 사망(영화 [덕혜옹주] 실제 주인공)

1990

사건

- (주)오성공업 설립(現 금형공장)
- 3당 합당(민주정의당(총재: 노태우), 통일민주당(총재: 김영삼), 신민주공화당(총재: 김종필))을 통해 민주자유당 창당
- 대한민국과 소비에트 연방(소련) 수교, 85년 만에 국교 정상화
- 윤석양 이병 양심선언 사건(10월 5일)
- 국군보안사령부(현재의 기무사)가 정계, 노동계, 종교계 등 사찰 대상 민간인 목록이 담긴 디스크를 공개한 사건
- 노태우 대통령,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 (10월 13일), (영화 [범죄와의 전쟁] 배경)

해외

-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걸프전쟁의 시작)
- 독일, 분단 41년 만에 서독과 동독 통일
-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채널 터널 연결 (1994년에 완공)
- 소련의 Rock group 키노(Кино)의 보컬 빅토르 초(소련의 고려인 가수), 사망
- "저방권에 비틀즈가 있었다면, 동구권에는 키노가 있었다."
- 러시아 Rock의 선구자이자 구 소련 국민들의 정신을 각성시키고 자유를 위해 투쟁한 가수로 평가

문화

- 한국에서 최초로 인터넷 연결(6월 1일)
- 이호왕 박사 팀과 녹십자사, 세계 최초로 유행성출혈열의 예방 백신 개발
- 미국에서 영화 [나홀로 집에] 개봉
- 지긋지긋한 크리스마스 특선 영화 두 줌도독의 신들린 슬랩스틱 연기는 레전드급, 귀요미 아역 배우의 대명사 맥컬리 컬킨의 역변 소식은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간간히 전해지고 있음.



1991

사건

- 지방자치제 30년 만에 부활
- 기초의원(3월 26일)과 광역의원(6월 20일)만 선출. 지방자치단체장은 1995년에 선거. 부산직할시 시의원 선거에서 당시 갓 은퇴한 야구선수 故 최동원이 꼬마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
- 강경대군 구타치사 사건 발생 후 연쇄 분신 파동
- 남북한, UN 동시 가입(9월 17일), 남북기본합의서 체결(12월 13일)
- 남북한 단일팀 구성으로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우승(영화 [코리아] 배경)
- 개구리 소년 사건(영화 [아이들...] 배경), 이형호 군 유괴 사건(영화 [그놈 목소리] 배경) 발생
-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피해 사실이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
- 광복 후 46년 만에...

해외

- 유고슬라비아 전쟁 시작(~1999년)
- 소비에트 연방(소련) 붕괴

문화

- 국군의 날,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단, 2013년 한글날은 공휴일로 부활)
- MBC, <몰래카메라> 첫 방영
- 이경규를 예능계의 거물로 만들어준 프로그램. 이후 비슷한 컨셉은 잇을만하면 등장.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소재이며, 재미와 사생활·인권 침해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1992

사건

- 정신대대책협의회,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첫 수요집회 개최(1월 8일)
-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수교 중화민국(대만)과 단교
- 다미선교회 시한부종말론 사건 발생 (10월 28일)
-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는 1993년에 만기되는 환매조건부채권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짐.

해외

- 미국, LA에서 흑인 폭동 발생
- 브라질 리우회의,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체결
-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 트럼프가 과연 손볼 수 있을까?

문화

- 서태지와 아이들 데뷔
- “한국어는 한글 구조상 랩이 불가능하다.” 라는 당시 전문가(?)들의 선입견을 무너뜨리고, 댄스와 랩을 대중화시켰다고 평가. 그들의 등장 이후 해외음악만 먹어주던 팬들이 한국가요를 듣기 시작함.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세기 대한민국 히트상품 1위
-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최
- 이 대회 전체 첫 금메달은 사격의 여갑순, 대회 전체 마지막 금메달은 마라톤의 황영조, 대한민국은 금메달 기준 종합 7위 (금12, 은5, 동12)로 지난 대회가 결코 흠 어드밴티지가 아님을 증명
- 소설 『즐거운 사람』 저자 마광수 교수, 외설이라는 이유로 구속

1993

사건

- 김영삼,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취임
-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41년 만에 북한으로 송환
- 군내 사조직 하나회 척결
- 부산, 구포역 열차 전복 사고 발생 (78명 사망, 193명 부상)
- 애국선열 5위의 유해(박은식, 신규식, 노백린, 김인전, 안태국)를 상해에서 운구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명령’으로 금융실명제 실시
- 공직자 재산 공개 최초 시행
-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및 국영기업체 상급 임원 등 1,166명의 재산 일괄 공개
- 서해 페리호 참사 발생(292명 사망, 드라마 『피노키오』 모티브)

해외

- 미국, 세계무역센터에서 폭탄 테러 발생 (7명 사망, 수천 명 부상)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

문화

- 영화 [서편제], 식혜·수정과 캔음료의 등장으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 대전엑스포 개막(8월 7일 ~ 11월 7일)
- 엑스포 기간 동안 1,400만 명이 다녀감. 천하장사 강호동은 행사장내 놀이마당에서 악수 오래하기예 도전하여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28,233명과 악수를 하여 기네스북에 등재
- 제1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백제금동대향로 발굴
- 도교적인 요소와 불교적인 요소가 모두 담겨 있음. 당시 한반도에는 없었던 원숭이, 코끼리 등도 조각되어 있어 당시 백제가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했음을 시사함.
- 성철 스님, 입적(入寂)
-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돈오돈수

(頓悟頓修)로 유명한 대한민국 현대불교의 고승. 그의 다비식은 지상과 3사가 모두 출동하여 생중계하여 사리 개수나 세는 저급함을 보이기도...

1994

사건

- 기술연구소 설립(現 R&D센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 주석, 심근경색으로 사망(7월 5일)
- 94년도는 남북관계에 격동의 한 해였음. 3월 19일, 판문점에서 남북특사 교환을 위한 8차 실무접촉 회의에서 ‘서울불바다’ 발언으로 남북관계 긴장. 6월 28일, 남북정상회담을 7월 25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그 사이 김일성 사망 및 조문 논란. 이후 박용 신부의 ‘주사파’ 발언으로 공안정국 형성
- 패륜 존속살해범 박한상 사건 발생 (영화 [공공의 적] 모티브)
-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존속살해는 경제적 곤궁 또는 막장부모에서 비롯되었는데, 자녀의 정신적·성격적 결함이 1차적 원인으로 발생한 존속살해라는 점에서 충격을 줌.
- 연쇄살인 사건을 일으켰던 지존파, 경찰에 체포
- 오직 살인을 위해서 얹은 인연이 있던 6명이 범죄집단을 조직한 것은 세계적으로 특수한 사례. 충격적인 살인 방식, 개인이 아닌 사회를 대상으로 한 보복성 살인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
-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서대신역 ~ 신평역 구간 개통

- 성수대교 붕괴 사고(32명 사망, 17명 부상)
- 드라마 <시그널> 5회에서 '한영대교'라는 이름으로 연상 신이 등장

해외

- 남아프리카공화국,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 완전 폐지 선언
- 콜롬비아, 축구선수 에스코바르가 월드컵에서 자책골을 넣었다는 이유로 과한에게 총살당함

문화

- 일본, KOF 시리즈의 첫 작인 King Of Fighters 94 발매
- 오락실에 코 문은 애들부터 키덜트까지 제법 잔돈 쏟았다는...
-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 완간
- 이우혁, 판타지 소설 『퇴마록』 출간
- 『퇴마록』 출간 이후 대한민국은 판타지 소설의 홍수가 일어남. 학창시절, 세워진 교과서 밑에 누워 있는 판타지 소설이 있는 장면은 부지기수

1995

사건

- (주)성주산업 설립(現 아산성우하이텍)
- 성우하이텍, 코스닥 등록
- 조선총독부 본청사 건물 철거 & 경복궁 복원 시작
- 광복 후에도 조선총독부 청사는 대한민국 정부 청사, 국회의사당,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임. 경복궁을 정면으로 가리고 있던 이 건물을 철거하기까지 광복 후 50년이 걸렸음.
-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 사고(101명 사망, 202명 부상)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502명 사망, 937명 부상)
-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건축물 붕괴사고

- 부실공사·안전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
- 최후 생존자는 사고 발생 17일 만에 구조되었는데, 전국민이 TV와 라디오를 통해 하루하루 구조소식을 애타게 기다렸음.
-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 가요 서태지와 아이들 <1996, 그들이 지구를 지배했을 때>, 강산에 <태극기>, 소설 정이현 『삼풍백화점』, 황석영 『강남동』, 문홍주 『삼풍 축제의 밤』, 드라마 <엄마의 기발>, <눈사람>, <자이언트>, <응답하라 1994>, 영화 <가을로>, <타짜> 등
- 전두환, 노태우 前 대통령, 12·12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주도 혐의, 뇌물죄로 구속 수감

해외

-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발족



- 일본, 고베 대지진 발생(6,434명 사망, 43,792명 부상, 3명 실종)
- 일본, 옌진리교가 도쿄 지하철에 사린 가스 살포(12명 사망, 5천여 명 중독)
- 미국, O.J. 심슨 무죄 판결 석방

문화

- 드라마 <모래시계> 방영
-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최민수 성대모사는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 광주비엔날레 개막(9월 20일 ~ 11월 20일)
- 의학박사 장기려 사망
- 청십자 의료보험이라는 국내 최초의 의료보험 창설
- 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신 위대한 의사, '바보의사', '한국의 슈바이처'라고도 불림.
- "내가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 그러로 가시오."

1996

사건

- 강원도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발생
- 49일간 소탕작전에서 침투 무장공비 26명 중 13명 사살, 11명 피살(함께 침투한 공비에 의한 처형), 1명 생포, 1명 도주 / 아군 피해는 전사 11명, 부상 27명, 민간인 4명, 경찰·예비군 2명 사망
- 헌법재판소, 영·음반 사전심의제도를 헌법이 금지한 검열에 해당하므로 위헌으로 결정
-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한 용의자 안두희를 박기서가 살해함.

해외

- 영국, 왕세자 찰스와 웨일스 공작 부인 다이애나 이혼, 이듬해 다이애나 사망
- 미국, FBI가 한국계 미 해군정보장교 로버트 김 기밀유출혐의로 체포
- 미국의 전직 해군정보국 직원이던 로버트 김, 미 해군정보국 컴퓨터분석관으로 근무하던 중 1996년 주미 한국 대사관 무관인 백동일 대령에게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관련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미 연방교도소에서 9년간 수감 생활하였음.

문화

- 광복 50주년을 맞아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3월 1일)
- 서태지와 아이들, 해체 선언
- 박찬호,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 리그 승리 투수가 됨(4이닝 무실점. Vs. 시카고 컵스).
- H.O.T. 데뷔
- 90년대 후반을 호령한 전설의 아이돌 그룹, 이후 젝스키스, NRG, 신화, god 등 다른 1세대 남성 아이돌 그룹이 등장. 2017년 현재 멤버 5명 중 3명이 불혹을 맞이했다는...

부산하면 떡볶이라여!

백종원의 <3대천왕>이 인정하는 떡볶이 맛집로드

대한민국 대표 길거리 음식 떡볶이.

가래떡과 고추장으로 만들지만

그 맛이 가지각색이다.

남녀노소·시간을 불문하고 즐기는 국민간식.

부산의 여행객들이 꼭 들르는

대표 떡볶이 맛집 3곳을 소개한다.



#01

이가네 떡볶이 - 정오의 희망 떡볶이

오전 11시에 문을 여는 순간부터 떡볶이는 불티나게 팔린다. 정말 맛있기 때문이다. 명성에 걸맞게 준비된 재료가 떨어지면 5~6시에도 쿨 하게 장사를 접으니 꼭 맛을 보겠다면 정오를 전후로 열심히 강동시장으로. 물을 전혀 넣지 않고 무채에서 나온 무즙만으로 조리 된다. 덕분에 달큰한 맛과 식감이 일품이다. 매콤하면서 달달하지만 그 맛이 과하지 않아 질리지 않는다. 양념간이 잘 배어서 먹는 순간 '와~'하고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떡볶이와 함께 튀김과 어묵 등을 먹으면 좋다.

특히 추천하는 메뉴는 과하게 크지 않은 적당한 사이즈의 핫도그, 배불리 먹고 나서 후식으로 먹어도 참말로 맛나다잉~ 아담한 가게는 서서 먹을 수 있는 바가 있지만 일행이 많거나 넉넉한 양을 주문한다면 포장을 추천한다.



영업시간 |

11:00~20:00

중구 부평1길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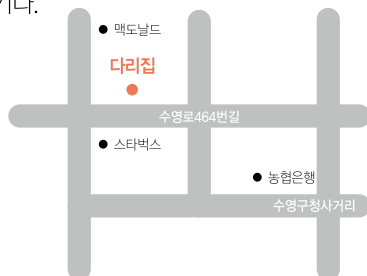


#02

다리집 - 애프터는 떡볶이

영국 귀부인들은 오후 4시경에 '애프터눈티'라며 쿠키와 차를 마신다. 고상해 보이지만 그저 출출한 속을 달래던 간식시간이다. 모양새는 달라도 '다리집'의 떡볶이는 최고의 오후 간식이다. 먼저 떠오르는 메뉴는 오징어튀김이다. 독보적인 개성과 맛을 지녔다. 두툽한 갑오징어에 바삭하기보다는 부드럽고 고소한 식감의 튀김옷이 새로운 맛의 세계를 알게 한다. 별도의 튀김장이 있지만 시뻘건 떡볶이 양념을 듬뿍 찍어 한입 넣어야 제대로 즐겼다고 할 수 있다. 떡볶이 양념은 무한리필. 처음에는 천막을 치고 떡볶이를 팔았다. 하룻길 여고생들이 늘 북적였다. 그 시절 가건물의 포장 천막이 짝아 밖에서는 스커트를 입은 여학생들의 종아리만 보였다고 한다. 아마도 또래 남학생들에게는 짓궂은 상상력을 제공했겠다. '다리집'이라는 이름이 가진 이야기다.

영업시간 |
12:00~22:00
수영구 수영로
464번길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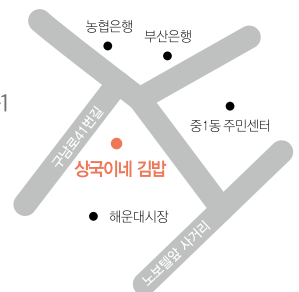
#03

상국이네 김밥 - 묘시의 떡볶이

24시간 영업을 한다. 먼동 트는 새벽에 매콤한 떡볶이와 어묵국물은 해장으로도 좋고 새벽일을 마친 사람들에게 든든한 한 끼로도 인기가.

가게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김밥이 주 메뉴 중 하나인데 떡볶이와 함께 먹으면 든든한 한 끼로 부족함이 없다. 단 김밥은 떡볶이 양념에 찍어야만 더욱 특별해진다. 당면이 듬뿍 들어간 유부주머니도 꼭 함께 시켜야 할 메뉴다. 칼칼한 양념맛을 중화시켜준다. 순대, 국수 등 분식메뉴가 다양하다. 그래도 역시 떡볶이가 최고다. 세계적인 피서지로 각광받는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이라 외국 여행객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글로벌한 인기답게 가게는 3층까지 테이블이 넉넉하고 깔끔하면서도 현대적인 인테리어를 갖추었다.

영업시간 | 24시간
해운대구 구남로 41번길 40-1



3대 떡볶이, 닮은 듯 다른 듯

- ① 세 곳 모두 비법 양념장을 판매한다.
- ② '이가네~'는 핫도그, '다리집'은 오징어튀김, '상국이네~'는 유부주머니와 함께.
- ③ 포장해 가는 손님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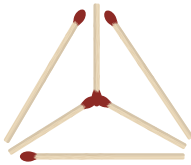
정답을 공개합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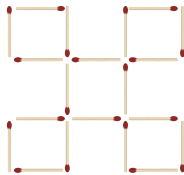


2. ① 춤사위 ② 포크레인 ③ 회전목마

3.



4.



5. <작은 고추가 맵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6.

9	5	3	4	6	8	2	1	7
6	8	7	3	1	2	4	9	5
4	1	2	5	7	9	6	8	3
1	9	6	2	8	3	7	5	4
7	3	8	6	4	5	9	2	1
5	2	4	7	9	1	8	3	6
2	7	9	1	5	6	3	4	8
8	4	1	9	3	7	5	6	2
3	6	5	8	2	4	1	7	9

7. ④

각 물건에 뚫린 구멍 수를 더하거나 빼는 문제다.
컵모자(2개) + 양말(1개) = 삼각팬티(3개)

8. ① 각각은 매 월의 마지막 날을 표시한 것. 그러므로 731, 630
② 각각은 달을 의미. 그러므로 5월+9개월은 2(월)
③ 공통 식은 $n(n-1)$, 그러므로 6

9. ① 마릴린 먼로 ② 레게 ③ 호두 ④ 평창 ⑤ 007

10. 검은옷 : 인간 흰옷 : 악마 회색옷 : 천사

검은옷이 천사라면 진술이 거짓이므로 전제가 부정, 성립되지 않음
(검은옷은 악마이거나 인간)
검은옷이 악마라면 진술이 참이 되므로 전제가 부정, 성립되지 않음
(따라서 검은옷은 인간)
흰옷이 천사라면 진술이 참이 됨. 그러나 회색옷이 악마라면 전제가 부정, 성립되지 않음. 흰옷이 악마일 경우 진술이 참이고, 회색옷의 진술도 참이 된다.

11. ① 빨주노초파남보 ② 월화수목금토일 ③ 도레미파솔라시
④ 일이삼사오육칠 ⑤ 이거하나못맞혀

12. ① 시계 ② 김치

13. 가위바위보

5(보)는 0(주먹)을 이기고
0(주먹)은 2(가위)를 이기고
2(가위)는 5(보)를 이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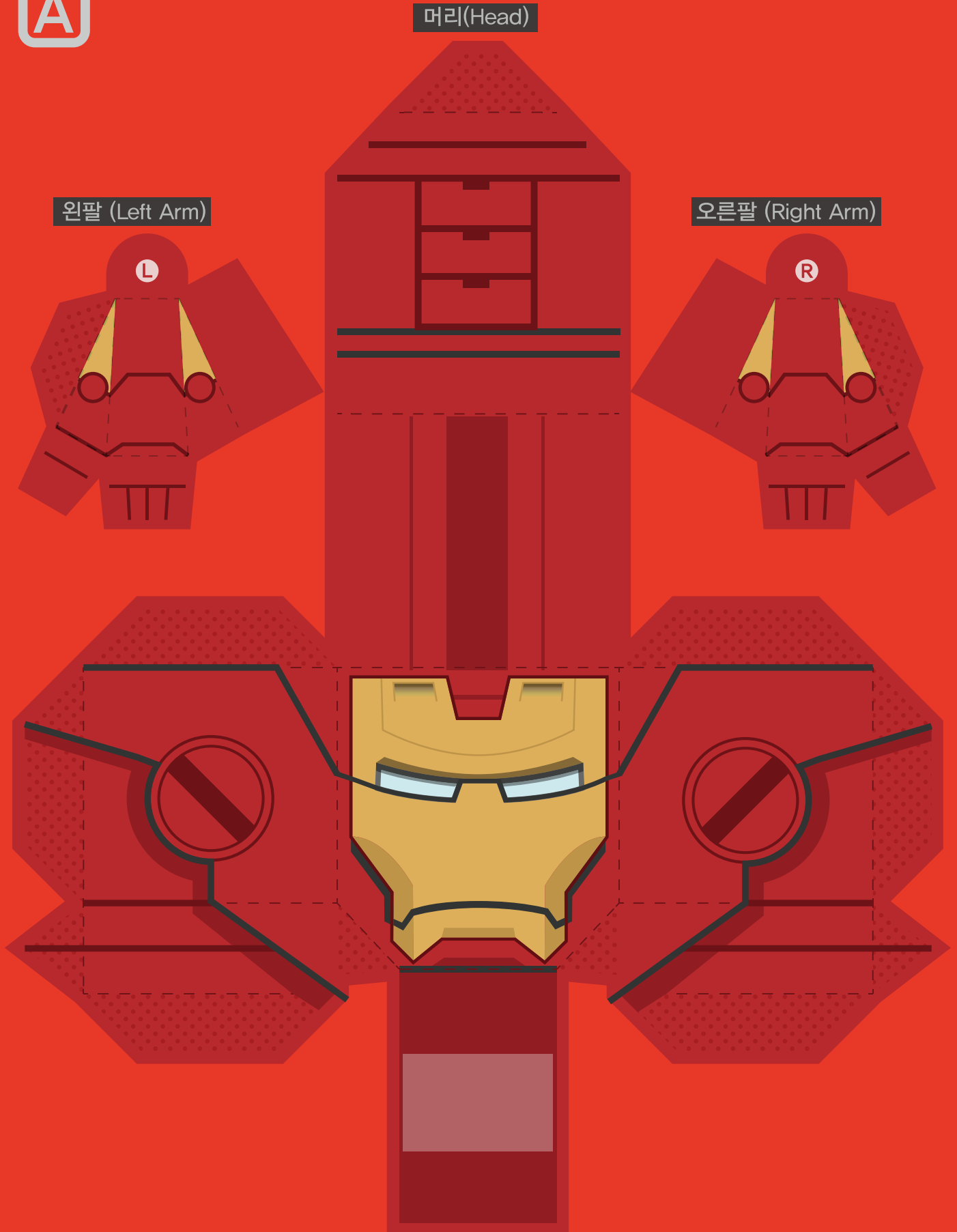
14. ① 일거양득 ② 이심전심 ③ 삼삼오오
④ 사면초가 ⑤ 오월동주 ⑥ 육두문자
⑦ 칠전팔기 ⑧ 팔방미인 ⑨ 구사일생
⑩ 십년감수

A

머리(H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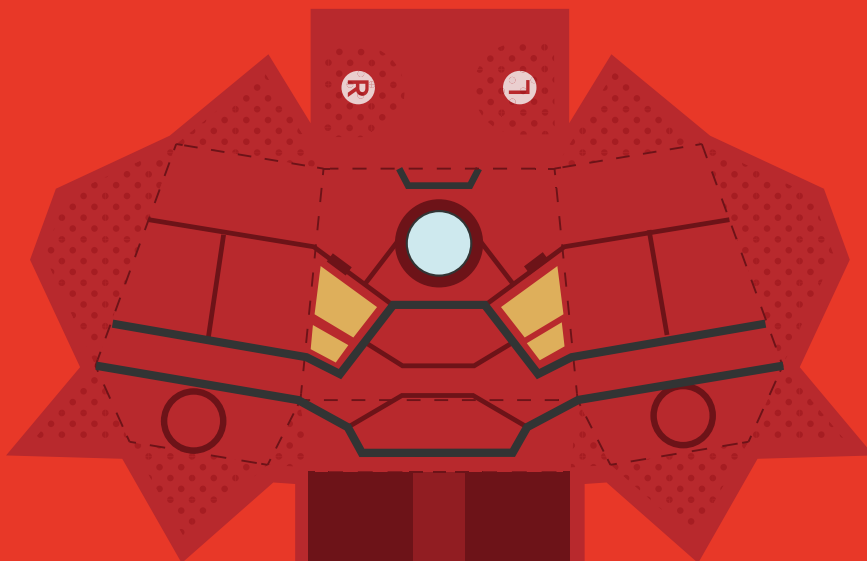
왼팔 (Left Arm)

오른팔 (Right A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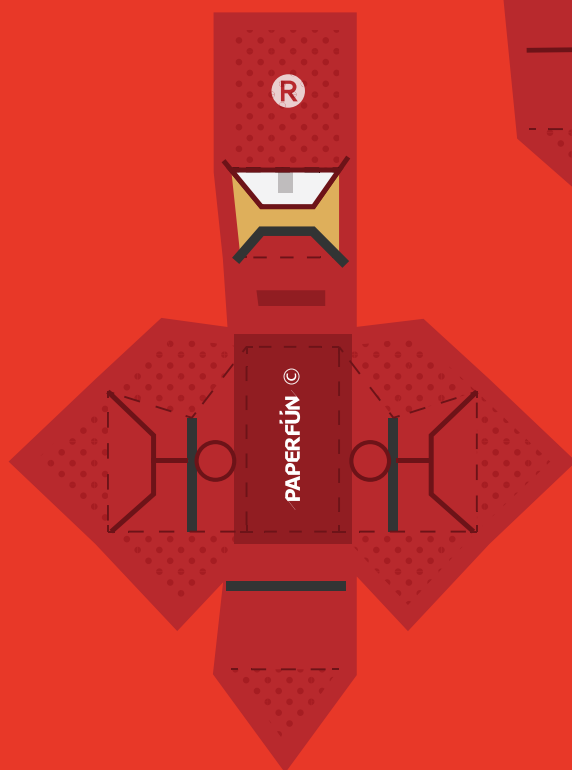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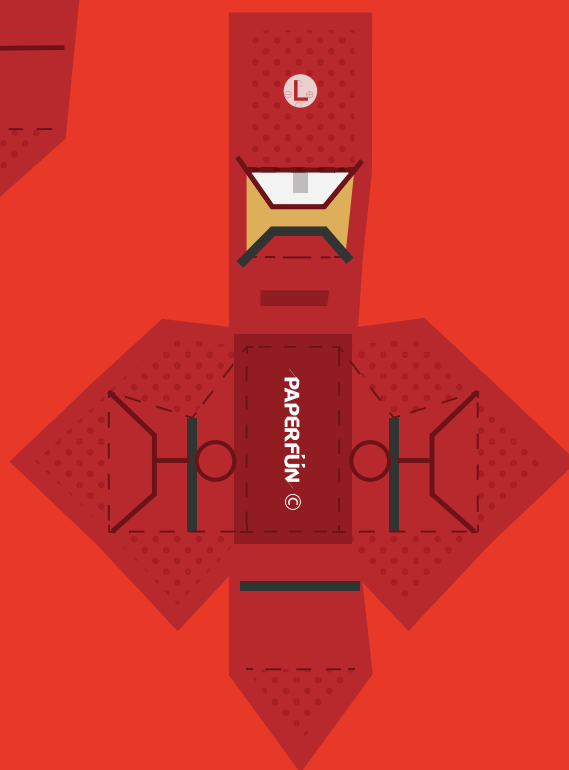
몸통 (Body)



오른다리 (Right Leg)



왼다리 (Left Leg)



손으로 뜯어서 아래 참조사항과 같이 접어주세요.

참조사항 :



산접기



계곡접기



풀칠면

페이퍼토이로 만드는 슈퍼 히어로

위기의 상황에서 기적처럼 나타나는 슈퍼 히어로!
자녀들과 함께, 점심시간을 이용해 팀원 · 반원들과 함께 페이퍼토이를 만들어보자.
머리를 맞대고 한 부분 한 부분 완성해갈수록 슈퍼 히어로 아이언맨이 내 손에!

만들기 순서



▶ 준비물: 풀 or 양면테이프



① 선을 따라 얼굴과 몸통, 팔다리를 떼어낸다.



② 아이언맨의 머리 부분을 박스 모양으로 접어 만든다.

TIP 머리 뒷부분은 풀로 붙이지 말고 숨겨둘 것



③ 몸통을 만든다.

TIP 이때 몸통 등 부분은 풀로 붙이지 말고 숨겨둘 것



④ 팔 부분을 만든다.



⑤ 다리 부분을 만든다.



⑥ 팔 부분을 몸통과 연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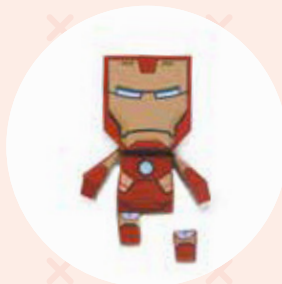


⑦ 몸통과 머리를 풀로 붙여 연결한다.

TIP 이때 등 부분과 머리 부분의 열린 곳을 이용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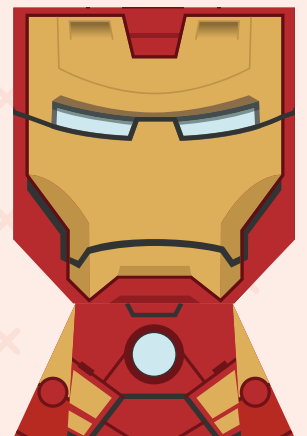
⑧ 등 부분과 머리 부분 열린 곳을 풀로 붙여준다.



⑨ 다리 부분을 붙인다.



⑩ 내 손으로 만드는 아이언맨 완성!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잠깐의 멈춤은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마에 맺힌 땀을 닦고
가쁜 호흡도 한숨 돌리고
느슨해진 운동화 끈을 다시 조여 맵니다.
다시 한 번, Let's Go!



Seochang Factory : 50, Sojugongdan 3-gil, Yangsan-si, Gyeongsangnam-do, Korea

R&D Center : 18-2, Sojugongdan 6-gil, Yangsan-si, Gyeongsangnam-do, Korea

Stamping Mould Factory : 30, Sojugongdan 7-gil, Yangsan-si, Gyeongsangnam-do, Korea

Jeonggwan Factory : 2-9, Nonggong-gil, Jeonggwan-eup, Gijang-gun, Busan, Korea

Coil Center : 151, Jangansandan-ro, Jangan-eup, Gijang-gun, Busan, Korea

Jisa Factory : 31, Gwahaksandan 1-ro, 60beon-gil, Gangseo-gu, Busan, Korea